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2. 3 I No. 150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22. 3 | No. 150

차 례

Ⅰ.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 5
   (1) 세계 경제 ····· 5
   (2) 국제금융·유가 ····· 6
2. 주요국 산업 동향 ····· 7
   (1) 중국 ····· 7
   (2) 미국 ····· 11
   (3) 일본 ····· 12
   (4) 유로존 ····· 14

Ⅱ. 국내 실물 경제

1. 국내 경기 ····· 16
2. 고용 ····· 18
3. 물가 ····· 19
4. 금융·외환 ····· 20
5. 수출입 ····· 22

Ⅲ.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 23
   (1) 총괄 ····· 23
   (2) 자동차 ····· 26
   (3) 조선 ····· 28
   (4) 일반기계 ····· 29
   (5) 철강 ····· 31
   (6) 정유 ····· 32
   (7) 석유화학 ····· 33

(8) 섬유 ····· 35
(9) 가전 ····· 36
(10) 무선통신기기 ····· 37
(11) 반도체 ····· 39
(12) 디스플레이 ····· 40

2. 서비스산업 ····· 41
(1) 생산 ····· 41
(2) 고용 ····· 44
(3) 서비스수지 ····· 46

Ⅳ. 지역별 동향

1. 개관 ····· 49
(1) 생산 ····· 49
(2) 고용 ····· 50
(3) 수출 ····· 52

2. 지역별 동향 ····· 53
(1) 수도권 ····· 53
(2) 충청권 ····· 55
(3) 호남권 ····· 57
(4) 대경권 ····· 59
(5) 동남권 ····· 60
(6) 강원·제주권 ····· 62

Ⅴ. 산업 포커스

1. 중국의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투자 정책과 국내 기계산업의 기회요인 ····· 6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2. 3 I No. 150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2년 3월 31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215
인쇄처 (주)프리비

I

해외 경제 동향

0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 미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소비 증가 등의 호조세에 힘입어 7.0%로 상향된 가운데 올 1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과 달리 증가로 전환

- 산업생산은 광업과 유틸리티, 제조업 등이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소매판매도 자동차·부품 호조 등에 힘입어 2021년 3월 이후 최대폭 증가

● 일본은 12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감소하면서 부진세를 나타내고, 유로존도 역내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시현

- 일본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소비와 투자의 동반 증가 영향으로 전기비 1.1%, 연간 전체 성장률은 1.6%를 각각 기록하고, 유로존에서는 지난해 4분기 역내 성장률이 전기비 0.3%, 연간 전체로는 5.2%를 기록

● 중국은 올 1월 소비자물가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과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0.9% 상승에 그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

-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지준율 인하(12월 6일)를 단행한 데 이어,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연속 인하(12월 20일·1월 20일)하면서 경기 부양에 주력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미국	실질GDP[1]	-3.4	5.7	6.7	2.3	7.0				
	산업생산	-7.2	5.5	1.6	0.8	1.1	1.4	0.9	-0.1	1.4
	소매판매	0.2	19.4	6.6	-0.5	2.3	1.8	0.7	-2.5	3.8
	무역수지[2]	-676.7	-861.4	-205.0	-223.4	-229.0	-66.9	-80.1	-82.0	-89.7
일본	실질GDP	-4.5	1.6	0.6	-0.7	1.1				
	광공업생산	-10.6	5.8	1.2	-3.7	1.0	1.8	7.0	-1.0	-
	소매판매	-3.5	2.1	-2.1	1.2	1.9	1.0	1.3	-1.2	-
	무역수지[2]	480	-1,476	434	-837	-1,616	-74	-958	-583	-
유로	실질GDP	-6.5	5.2	2.2	2.3	0.3				
	산업생산	-7.7	7.8	-0.3	-0.6	-0.5	-1.5	2.4	1.2	-
	소매판매	-1.0	5.1	4.0	0.9	0.3	0.3	1.0	-3.0	-
	무역수지[2]	234.0	123.2	37.4	27.0	-10.7	0.8	-1.8	-9.7	-
중국[3]	실질GDP	2.3	8.1	7.9	4.9	4.0				
	산업생산	2.8	9.6	9.0	4.9	3.9	3.5	3.8	4.3	-
	소매판매	-3.9	12.5	14.1	5.1	3.5	4.9	3.9	1.9	-
	수출(달러화)	3.6	29.9	30.6	24.2	23.0	26.9	21.7	20.9	-

자료: 미 상무부, 연준,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 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2)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및 유가의 동반 강세

● 달러화는 2월 초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 시사 등으로 유로화 대비 약세를 보인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에 따른 안전통화 수요 심리 강화와 3월 FOMC에서 연준의 긴축 기조 예상 등의 영향으로 강세

- 달러화 지수는 3월 초 한때 2020년 5월 말 이후 최고치로 상승(3월 7일 99.2)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1							2022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0일
엔/달러 달러/유로	111.11 1.1858	109.72 1.1870	110.02 1.1809	111.29 1.1580	113.95 1.1558	113.17 1.1338	115.08 1.1370	115.11 1.1235	115.00 1.1219	116.14 1.0986
미 국채 (10년 만기)	1.47	1.22	1.31	1.49	1.55	1.44	1.51	1.78	1.83	1.99
WTI유 두바이유	73.5 73.0	74.0 73.3	68.5 69.4	75.0 75.9	83.6 81.9	66.2 71.0	77.0 76.5	88.2 87.5	95.7 97.0	106.0 119.9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유가는 지난 2월 중 이란 핵협상의 타결 기대감 등으로 제한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00달러를 돌파하고,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발표 이후에 120달러대로 상승하는 등 강세

- WTI유와 두바이유는 각각 2008년 9월, 201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20달러 돌파

02 주요국 산업 동향

(1) 중국

□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4.3%로 소폭 회복

●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4.3%로 9월부터 3개월 연속 3%대에 머물렀다가 소폭 회복세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7.3%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3.8%

●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전월 대비 민영기업과 주식제기업이 소폭 개선된 반면, 국유기업은 소폭 하락

- 국유기업은 전년동월비 3.3%, 민영기업은 4.7%, 주식제기업은 4.7% 수준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10월	11월	12월
공업 전체		5.7	-1.3	2.8	15.9	3.5	3.8	4.3
섬유	방직	-5.9	-25.9	-15.7	11.8	0.3	2.8	0.8
	화학섬유	12.5	-1.0	3.4	17.1	-4.9	-2.7	-2.8
화학	에틸렌	9.4	-0.8	4.9	26.6	4.0	2.7	2.5
	플라스틱원료	9.3	2.8	7.0	12.3	-3.9	0.0	3.0
	플라스틱제품	3.9	-9.6	-6.4	18.2	-1.1	-1.2	2.4
철강	선철	5.3	2.2	4.3	4.0	-19.4	-16.6	-5.4
	조강	8.3	1.4	5.2	11.8	-23.3	-22.0	-6.8
	강재	9.8	2.7	7.7	13.9	-14.9	-14.7	-5.2
비철금속		3.5	2.9	5.5	11.0	-2.6	-0.7	-3.8
기계	금속절삭기계	-18.8	-7.7	5.9	45.6	4.8	2.1	5.8
	소형 트랙터	3.0	-29.7	-47.2	27.6	-6.7	-11.1	-10.5
	대기오염방지설비	-13.7	-22.5	-21.1	25.6	11.5	-14.8	17.3
	발전설비	-15.0	16.7	30.3	17.4	-5.7	1.9	9.0
자동차		-8.0	-16.5	-1.4	26.4	-8.3	-7.1	3.4
조선		9.3	-10.4	-8.2	19.1	41.1	9.6	-22.3
전자	세탁기	9.8	-7.2	3.9	33.5	-8.7	-1.5	-2.7
	냉장고	8.1	-6.9	8.4	18.8	-13.5	-10.3	-5.2
	에어컨	6.5	-16.4	-8.3	21.0	6.0	3.7	-1.7
	컬러TV	-2.9	-2.5	4.7	5.6	-5.5	-7.5	4.4
	컴퓨터	6.9	5.2	16.0	40.6	-2.1	7.2	3.9
	반도체	7.2	16.4	16.2	48.1	22.2	11.9	1.9
	휴대폰	-6.0	-13.3	-9.5	21.1	-0.9	3.9	2.8
서비스	화물운수	5.5	-7.8	-0.5	24.6	2.7	0.2	2.4
	여객운수	-1.9	-54.8	-45.1	11.1	-32.2	-41.1	-33.6
	우편[3]	31.5	22.4	29.7	34.4	18.7	16.7	11.9
	통신[3]	62.9	28.3	28.1	28.3	28.3	25.0	28.0
	소매업	7.9	-8.7	-2.3	20.6	5.2	4.8	2.3
	음식숙박업	9.4	-32.8	-16.6	48.6	2.0	-2.7	-2.2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3) 각 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12월의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화학과 자동차가 전년동월비 증가

- 섬유업종은 화학섬유가 9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2.8%)
- 화학업종은 에틸렌(2.5%), 플라스틱원료(3.0%), 플라스틱제품(2.4%) 모두 증가
- 철강업종은 선철(-5.4%), 조강(-6.8%), 강재(-5.2%) 모두 4분기 내내 감소하였으며, 이는 겨울철 전력수요 증가, 탄소배출목표치 미달 및 이에 따른 전력 공급 제한에 따른 것으로 판단
- 비철금속도 4분기 내내 감소(12월, -3.8%)
- 소형트랙터를 제외한 기계업종은 증가한 가운데 금속절삭기계는 5.8%, 발전설비 9.0%, 대기오염방지설비는 17.3%의 큰 폭 증가
- 자동차는 상반기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9월부터 11월까지 감소하였다가 12월에는 3.4% 증가
- 조선업은 2021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12월에는 22.3% 급감
- 전자업종에서는 컬러TV(4.4%), 컴퓨터(3.9%), 휴대폰(2.8%), 반도체(1.9%)가 증가한 반면, 에어컨(-1.7%), 세탁기(-2.7%), 냉장고(-5.2%)는 감소

● 여전히 코로나 상황의 여파로 12월에도 여객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우편과 통신은 크게 증가

- 화물운수(2.4%)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여객운수(-33.6%)는 코로나19 변이의 확산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 12월 우편과 통신은 각각 11.9%, 28.0%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
- 소매업은 2.3% 증가한 반면, 음식숙박업은 2.2% 감소

□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민간치 중심으로 회복세

● 2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50.2로 여전히 불투명한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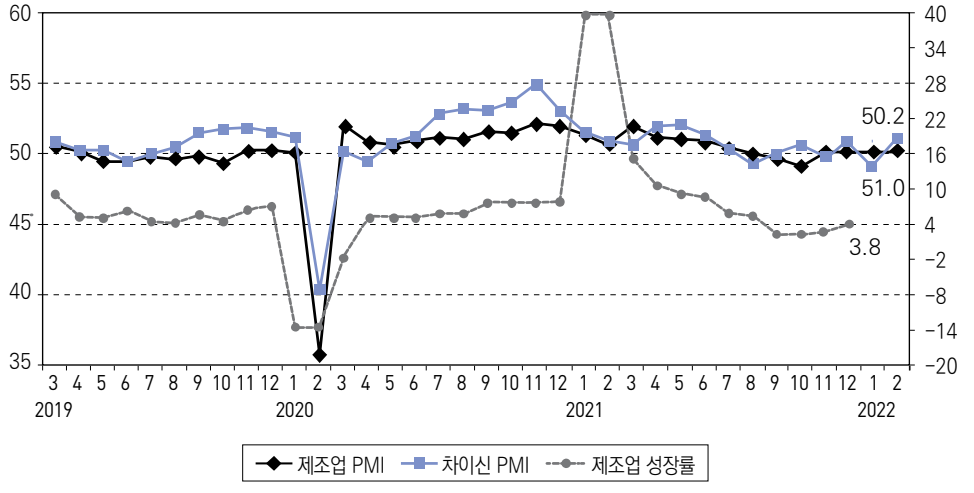
- 생산지수는 0.5포인트 하락한 50.4
- 신규주문지수는 1.4포인트 상승한 50.7

- 부품재고지수는 1.0포인트 하락한 48.1
- 종업원지수는 0.3포인트 상승한 49.2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0.6포인트 상승한 48.2

● 제조업 PMI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형기업과 중형기업은 지난달에 이어 뚜렷이 개선된 반면 소형기업은 오히려 악화되어 양극화 심화
- 대형기업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51.8
- 중형기업은 0.9포인트 상승한 51.4
- 소형기업은 0.9포인트 하락한 45.1

● 2월 차이신(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보다 1.9포인트 상승한 51.0으로 회복
- 2월 들어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이 증가하였고 약 8개월 만에 신규업무가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
-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수출판매가 부진한 상황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기업들은 여전히 고용을 줄이고 있으나 1월부터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관리자수준은 7개월째 감소 중
- 원자재 및 완제품의 재고는 낮아졌으며, 그로 인하여 구매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원자재 배송은 여전히 선적 지연과 재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22년 들어 상황이 비교적 나아진 편
- 2021년 7월 이후 사업전망이 가장 낙관적인 상태이며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의 도래와 그로 인한 수요 증가를 기대

(2) 미국

□ 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3.0% 증가

● 1월 제조업 생산은 대부분 제조 업종에서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3.0% 증가
- 통신기기와 자동차·부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요 업종에서 증가
-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업종은 반도체·전자부품(9.4%)과 1차 금속(8.1%)이며 화학(6.7%), 기계(5.3%)도 5%대 이상의 증가
- 그 외에는 컴퓨터·주변기기(4.4%), 항공우주(4.3%), 금속제품(3.3%) 등이 제조업 평균 증가폭 이상의 증가

● 반면 통신기기와 자동차·부품 생산은 전년동월비 감소
- 특히 자동차·부품은 지난해 7월 이후 계속해서 감소가 이어지면서 부진이 지속되는 추세
  · 1월 자동차·부품은 3.7%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6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생산 지표를 기록한 것
- 통신기기는 3.9% 감소하면서 생산이 부진한 업종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제조업 전체	-6.4	6.7	6.0	4.5	4.6	5.0	4.0	3.0
식품	-2.6	2.4	1.7	1.5	1.4	1.6	1.4	1.2
제지	-4.3	0.3	4.9	-1.0	-0.5	-2.0	-0.6	2.0
정유	-13.0	9.3	12.7	10.5	11.2	12.5	7.8	2.8
화학	-2.6	5.2	7.7	6.2	6.2	6.4	6.1	6.7
플라스틱·고무	-7.6	6.1	5.0	3.9	3.0	5.6	3.2	2.3
1차 금속	-13.4	13.0	17.8	10.0	11.3	9.1	9.7	8.1
금속제품	-7.6	4.1	5.8	5.4	5.5	5.8	4.8	3.3
기계	-6.1	10.9	10.5	7.9	6.8	8.3	8.6	5.3
컴퓨터·주변기기	14.1	12.1	8.8	5.6	5.1	5.2	6.5	4.4
통신기기	12.4	6.8	7.4	-0.1	1.7	-0.1	-1.7	-3.9
반도체·전자부품	3.7	11.9	11.3	10.0	9.6	10.2	10.2	9.4
자동차·부품	-15.7	9.5	-11.3	-3.3	-3.9	-1.5	-4.5	-3.7
항공우주	-20.1	16.7	16.1	9.4	11.0	8.7	8.6	4.3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3) 일본

□ 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0.9% 감소

● 제조업 생산은 수송기기, 전기·정보통신기기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감소로 전환

- 지난 11월 이후 증가를 기록해온 제조업 생산은 1월 0.9% 감소로 돌아섬.
- 이는 수송기기와 전기·정보통신기기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서 기인
- 특히 수송기기는 지난해 9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월에는 15.6% 감소로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
- 전기·정보통신기기도 6.1% 감소하면서 크게 감소한 업종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제조업 전체	-10.3	5.8	5.7	1.2	-4.1	5.1	2.7	-0.9
강철·비철금속	-14.6	12.9	19.9	4.1	1.9	6.7	3.8	-2.1
금속제품	-11.5	4.2	5.0	-1.9	-6.2	1.4	-0.7	-3.3
생산기계	-10.3	22.9	32.8	24.0	25.3	27.8	19.7	16.9
일반용·업무용 기계	-12.1	10.7	19.2	5.6	2.5	5.9	8.3	4.5
전자부품·기기	1.4	15.2	17.2	11.0	9.2	15.3	8.6	8.4
전기·정보통신기기	-9.7	6.6	5.8	-3.6	-6.9	-1.7	-2.4	-6.1
수송기기	-17.4	-0.7	-13.2	-14.4	-32.9	-3.9	-5.4	-15.6
요업·토석제품	-8.5	4.0	8.7	-0.5	-2.5	1.0	0.1	-2.2
화학공업(의약품 제외)	-12.5	3.7	6.8	5.1	4.3	7.4	3.7	2.9
석탄·석유제품	-15.5	0.1	7.6	5.7	8.8	4.1	4.4	7.8
플라스틱제품	-6.3	3.2	1.7	-1.7	-8.9	2.7	1.5	-1.5
펄프·종이·가공품	-9.7	3.2	7.5	2.0	2.2	1.3	2.3	0.1
식품·담배	-3.0	-0.8	-2.2	1.2	-1.3	4.8	0.2	-
기타 제조업	-13.2	5.2	10.3	3.1	1.5	5.4	2.6	2.3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주: 2015=100

- 그 외 금속제품(-3.3%), 요업·토석제품(-2.2%), 강철·비철금속(-2.1%), 플라스틱(-1.5%) 등 다수의 업종도 감소

● 반면 생산기계는 지난해에 이어 생산 호조를 이어가는 추세

- 생산기계는 지난해 전년비 22.9% 증가를 기록하면서 전체 제조업 생산을 견인
- 올 1월에도 주요 업종 중 생산이 가장 활발한 업종으로, 16.9% 증가
- 그 외에도 전자부품·기기와 석탄·석유제품이 지난해 호조 추세를 이어가면서 각각 8.4%와 7.8% 증가

(4) 유로존[1)]

□ 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보합

● 1월 제조업 생산은 정유, 전자제품 및 기계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조선 등의 위축으로 전년동월비 보합

- 정유는 코크스 오븐과 정유제품이 각각 6.8%, 9.0% 증가하며 7.9%의 증가율 기록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월
제조업 전체	-9.1	8.2	6.6	1.4	0.3	0.0	0.0
식음료	-2.4	3.3	3.2	4.1	7.6	2.1	4.2
섬유	-12.8	10.0	6.3	2.0	3.2	1.1	0.7
정유	-10.1	3.4	7.3	9.0	7.4	8.6	7.9
화학	-2.5	4.5	4.6	0.3	0.3	0.5	0.1
고무·플라스틱	-8.6	8.3	3.2	-2.1	-2.0	-2.4	-1.9
1차 금속	-13.1	11.6	9.5	2.3	2.1	1.3	0.9
조립금속	-12.0	11.7	8.4	1.6	3.2	-1.6	-0.9
기계	-12.7	12.3	13.2	8.5	8.8	7.1	5.9
통신기기	-14.2	9.3	5.2	-2.7	-4.1	-2.3	0.8
전자부품	1.8	10.6	11.1	3.8	2.6	2.9	7.4
자동차	-23.8	-2.0	-20.4	-20.5	-21.3	-13.2	-11.2
조선	-8.1	13.9	4.8	8.5	5.4	7.8	-3.1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19개 국가.

- 기계의 경우,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10.0%),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9.7%) 등의 증가로 인해 5.9% 증가
- 전자제품은 전자부품이 8.7%, 전자기판이 2.8% 증가하며 7.4% 증가
- 반면, 자동차는 차체 및 트레일러와 부품이 증가하였으나, 완성차가 감소하며 11.2% 감소
- 조선은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이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0.1%)이었으나,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5.4%) 부진으로 3.1% 감소

Ⅱ

국내 실물 경제

01 국내 경기

□ 1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3% 감소, 소비 감소, 투자 증가

● 1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0.2%)과 건설업(0.5%)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서비스업(-0.3%)에서 2개월 연속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0.3% 감소

-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전월비 -3.2%) 등에서 감소함에도 반도체(6.1%)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비 0.2%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2.7%)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0.3% 감소
-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전월비 0.7%)가 증가한 반면, 승용차 등 내구재(-6.0%)와 의복 등 준내구재(-3.4%)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월비 1.9%나 감소
-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12.0%)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비 2.5% 증가(4개월 연속 증가)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1.5%) 및 건축(0.1%) 공사 실적이 동반 증가하면서 전월비 0.5%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하락한 반면, 수입액과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전월비 0.8% 상승(12개월 연속)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장단기금리차,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함에도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2% 상승

국내 실물 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GDP성장률	-0.9*	4.0*	6.0* (0.8*)	4.0* (0.3*)	4.2* (1.2*)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5.0*	3.6*	3.7* (3.6*)	3.3* (-0.2*)	6.3* (1.6*)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7.1*	8.3*	12.8* (1.1*)	4.2* (-2.4*)	4.0* (-0.7*)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0.4*	-1.5*	-1.2* (-2.3*)	-1.2* (-3.5*)	-1.7* (2.9*)	-	-	-	-
전산업생산지수	-1.1	4.9*	7.3 (0.6)	3.9 (0.9)	5.8* (1.5*)	4.9 (-0.1)	5.4 (1.2)	6.8* (1.3*)	4.3* (-0.3*)
광공업생산지수	-0.3	7.4*	13.1 (-0.6)	5.8 (1.0)	6.5* (1.2*)	5.1 (0.4)	6.7 (4.6)	7.4* (3.7*)	4.3* (0.2*)
제조업생산지수	-0.2	7.6*	13.4 (-0.7)	5.8 (0.9)	6.6* (1.4*)	5.2 (0.4)	7.0 (1.8)	7.6* (3.7*)	4.4* (0.1*)
서비스업생산지수	-2.0	4.4*	5.7 (1.7)	3.9 (1.1)	5.5* (1.5*)	5.1 (0.4)	5.4 (1.2)	5.8* (-0.4*)	4.8* (-0.3*)
소매판매액지수	-0.2	5.9*	5.0 (2.2)	5.6 (0.8)	6.4* (1.1*)	7.9 (0.0)	4.8 (-0.7)	6.8* (2.2*)	4.5* (-1.9*)
설비투자지수	5.9	9.6*	13.2 (0.7)	6.2 (-0.8)	6.3* (-0.2*)	3.1 (-1.2)	8.8 (3.9)	6.6* (2.2*)	0.6* (2.5*)
건설기성액	-2.1	-6.7*	-7.2 (-1.9)	-8.1 (-1.1)	-2.9* (4.1*)	-2.1 (1.5)	-7.8 (-1.1)	0.5* (6.0*)	6.8* (0.5*)
동행종합지수(2015=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12.5 98.6	116.9* 100.5*	116.6 100.5	117.6 100.8	118.7* 101.3*	118.1 100.9	118.5* 101.1*	119.5* 101.8*	120.4* 102.4*
선행종합지수(2015=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18.9 98.9	126.4* 101.0*	126.4 101.6	127.5 101.4	127.5* 100.4*	127.5 100.7	127.4* 100.4*	127.6* 100.2*	127.9* 100.1*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02 고용

□ 1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4.4% 증가

● 1월 전 산업 취업자 수는 제조업을 비롯해서 농림·어업과 SOC·기타 서비스업에서 증가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세(2.9% → 4.4%, 2002년 2월 이후 최고치)

- 제조업 증가세는 전월보다 확대(0.8% → 1.5%)
- 농림·어업에서 증가율이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2.7% → 7.6%)를 기록하고, SOC·기타 서비스업도 2002년 4월 이후 최고치(3.4% → 4.9%)
- 건설업도 전월보다 더욱 증가(1.9% → 5.1%)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도 20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0.2% → 1.4%)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 산업	26,904	27,273	27,467	27,645	27,611	27,683	27,741	27,795	27,298	26,953
전년동기비	-0.8	1.4	2.3	2.1	2.4	2.5	2.4	2.0	2.9	4.4
농림·어업	3.6	0.9	0.2	1.6	2.0	1.4	1.3	2.1	2.7	7.6
제조업	-1.2	-0.2	0.1	-0.8	0.6	-0.8	-0.3	1.2	0.8	1.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1.0	1.7	2.9	2.8	2.9	3.2	3.0	2.2	3.4	4.9
건설업	-0.2	3.7	7.0	4.5	1.7	2.7	2.5	0.8	1.9	5.1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3	-3.5	-2.4	-2.6	-1.9	-1.5	-1.7	-3.7	-0.2	1.4
전기·운수·통신·금융	0.7	5.6	5.2	6.9	8.3	8.3	9.0	8.5	7.3	6.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0.9	3.0	4.3	4.1	4.0	4.3	3.9	3.8	4.3	6.1
실업률(계절조정, %)	4.0	3.6	3.7	3.2	3.4	3.1	3.2	3.2	3.8	3.6

자료: 통계청.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5개월 만에 증가(-5.0% → 4.1%)한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7.6% → 11.8%)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7.7% → 9.8%)에서도 증가폭이 확대되고, 교육서비스(6.5% → 4.2%)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5.0% → 5.2%)에서도 증가세가 유지된 데 힘입어 전체 증가율이 더욱 상승(4.3% → 6.1%, 2005년 11월 이후 최고치)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6%로서 5개월 만에 하락 전환

03 물가

□ 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6%, 전년동월비 3.7% 상승

● 올 2월 소비자물가는 오락 및 문화(-0.2%)를 제외하고 주택·수도·전기·연료(0.8%), 음식·숙박(0.8%), 기타 상품·서비스(1.2%), 교육(0.2%)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월비 0.6% 상승(전년동월비 3.7%)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소비자물가	0.5	2.5	2.5 (0.5)	2.5 (0.7)	3.5 (1.0)	2.4 (0.4)	3.2 (0.2)	3.8 (0.5)	3.7 (0.2)	3.6 (0.6)	3.7 (0.6)
근원물가	0.7	1.8	1.5 (0.6)	1.9 (0.5)	2.6 (0.9)	2.0 (0.2)	2.8 (0.3)	2.4 (0.2)	2.7 (0.4)	3.0 (0.5)	3.2 (0.4)

자료: 통계청.
주: (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04 금융·외환

□ 1월 기업대출 증가로 전환, 가계대출 감소세 지속, 3월 초(3월 2일~10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 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상당폭 늘어나며 증가로 전환(2021년 12월 -2조 8,000억 원 → 2022년 1월 +13조 3,000억 원, 대기업 +4조 원, 중소기업 +9조 2,000억 원)

- 대기업 대출은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증가로 전환되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설자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의 요인으로 크게 늘어나며 증가로 전환
- CP는 연말 일시상환분 재발행 등으로 순발행으로 전환되었고, 회사채는 투자기관의 연초 자금운용 재개 등으로 순발행으로 전환되었으며,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기업공개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발행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

기업 자금조달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20		2021					2022	2022년 1월 말 잔액
	연중	1월	연중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은행 원화대출	107.4	8.6	89.3	10.0	10.3	9.1	-2.8	13.3	1,079.0
(대기업)	19.5	3.1	7.5	3.4	2.3	2.8	-1.7	4.0	183.4
(중소기업)	87.9	5.4	81.8	6.6	8.0	6.4	-1.0	9.2	895.6
〈개인사업자〉	47.5	1.6	37.0	2.5	2.6	2.7	1.1	2.1	425.1
회사채순발행	15.5	0.1	16.2	2.2	0.2	-0.2	-0.8	2.3	..
CP 순발행	2.3	6.3	4.1	3.3	-1.0	0.7	-3.0	5.8	38.5
주식발행	11.0	0.0	28.9	1.7	1.1	2.3	0.6	13.0	..
은행 가계대출	100.6	3.7	71.8	7.6	5.2	2.9	-0.2	-0.4	1,060.2
주택담보대출	32.4	-0.6	14.7	2.6	0.5	0.5	-2.2	-2.6	278.1
기타 대출	68.3	4.3	56.9	5.0	4.7	2.4	2.0	2.2	781.0

자료: 한국은행.

● 1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기타 대출 감소폭 확대 등으로 전월에 이어 소폭 감소(2021년 12월 -2,000억 원 → 2022년 1월 -4,000억 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둔화되었지만, 집단대출 취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고, 기타 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지속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소폭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리 상승 여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상승(3월 2일 2.19% → 3월 10일 2.27%, 0.08%포인트 상승)

● 원/달러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조짐,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 확대 가능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 하락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3월 2일 1,206.1원 → 3월 10일 1,228.3원, 22.2원 상승)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0	2021				2022		
	4/4	1/4	2/4	3/4	4/4	1월	2월	3월 10일
국고채(3년)	0.98	1.13	1.45	1.59	1.80	2.19	2.24	2.27
회사채(3년, AA-)	2.21	2.06	1.97	2.05	2.42	2.77	2.86	2.93
CD(91일)	0.66	0.75	0.68	1.04	1.29	1.50	1.50	1.50
CP(91일)	1.09	1.00	0.97	1.18	1.56	1.64	1.64	1.64
원/달러	1,086.3	1,131.8	1,126.1	1,184.0	1,188.8	1,205.5	1,202.3	1,228.3
원/100엔	1,054.3	1,027.3	1,022.1	1,058.2	1,030.2	1,042.8	1,041.5	1,065.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기말 종가 기준.

05 수출입

□ 2월 수출 20.6% 증가, 수입 25.1% 증가, 무역수지 8억 달러 적자

● 올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0.6% 증가한 539억 달러, 수입은 25.1% 증가한 531억 달러, 무역수지는 8억 달러 적자를 기록

-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품목들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중국·미국·아세안 등지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2월 기준 최대 실적 달성
- 수입도 에너지 가격 급등과 수출 호조에 따른 중간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 지속(13개월 연속)

  * 원유 수입은 도입단가(90.6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58.8% 상승하고, 도입물량이 2.9%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은 63.3% 증가한 70억 달러를 기록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수출	5,125 (-5.5)	6,444 (25.7)	1,567 (42.1)	1,645 (26.5)	1,767 (24.6)	557 (24.2)	604 (31.9)	607 (18.3)	553 (15.2)	539 (20.6)
수입	4,676 (-7.1)	6,150 (31.5)	1,492 (37.7)	1,569 (37.5)	1,724 (39.4)	538 (37.7)	574 (43.6)	612 (37.1)	602 (35.4)	531 (25.1)
무역수지	449	294	75	76	44	18	30	-5	-48	8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2월 실적은 잠정치.

Ⅲ

주요 산업별 동향

01 제조업

(1) 총괄

□ 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4.4%, 전월비 0.1% 증가

● 제조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24.6%), 금속가공(-11.8%), 자동차(-9.3%) 등의 업종이 줄어들었지만, 반도체(34.3%), 의약품(11.8%), 화학제품(3.8%) 등의 업종이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비 4.4%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1.9%), 중공업(5.2%)과 경공업(1.0%) 모두 지난달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가 지속
- 전월비 기준으로는 통신·방송장비(-19.0%), 전기장비(-4.8%), 기계장비(-3.2%)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지만, 반도체(6.1%), 비금속광물(5.5%), 자동차(3.2%) 등의 업종이 늘어나면서 전월비 0.1%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은 반도체, 화학제품, 영상·음향기기 등에서 증가하였지만, 금속가공, 전자부품, 고무·플라스틱, 전자부품 등의 업종이 줄어들면서 전년동월비 0.9% 감소, 전월비 0.8% 감소

산업별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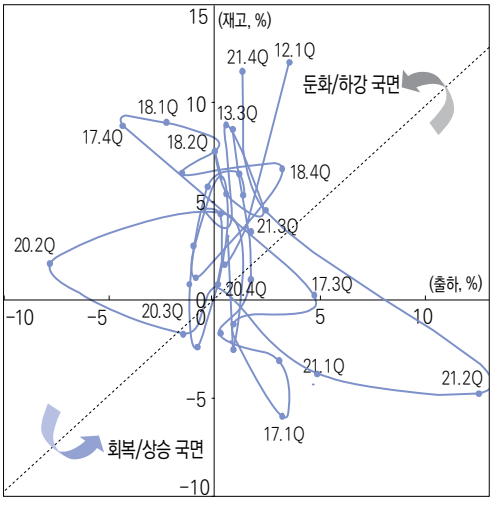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가중치 (2020)	2020	2021*	2021				2022	
				3/4	4/4*	11월	12월*	1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6.4	114.3	112.7	120.4	119.3	127.0	115.1	-
전년동기비 증가율	-	-0.3	7.4	5.8	6.5	6.7	7.4	4.3	0.2
제조업(원지수)	9,489.5	106.4	114.5	113.0	120.7	119.8	126.7	113.8	-
전년동기비 증가율	-	-0.2	7.6	5.8	6.6	7.0	7.6	4.4	0.1
섬유	129.8	-10.7	5.8	3.9	2.8	4.2	4.5	6.6	4.9
화학	845.3	-3.2	7.6	8.7	4.9	7.7	4.9	3.8	-1.1
철강	594.9	-6.1	5.8	10.8	1.2	2.8	-1.1	1.1	1.7
반도체	1,423.5	22.6	29.6	33.9	34.2	33.9	31.4	34.3	6.1
컴퓨터·주변장치	30.4	-7.9	-1.0	-6.5	-4.3	3.8	-3.7	-1.0	-3.2
통신·방송장비	122.9	-11.6	22.5	20.4	8.0	12.7	-0.8	-24.6	-19.0
의료·정밀·광학	226.6	4.7	17.0	14.1	9.5	17.2	5.1	6.5	4.2
기계장비	843.8	3.1	11.9	7.9	7.7	6.7	8.1	1.1	-3.2
자동차	927.2	-9.5	4.5	-8.9	-4.1	-5.1	7.7	-9.3	3.2
조선	220.1	8.6	-16.7	-22.8	-12.3	-13.7	-9.4	-12.1	-0.9
중공업	-	0.6	8.9	7.6	7.8	8.0	8.7	5.2	0.1
경공업	-	-3.5	1.7	-2.0	1.7	2.0	3.3	1.0	0.1
제조업ICT	-	11.8	20.3	22.7	22.1	21.8	21.0	21.9	-9.5

자료: 통계청.
주: *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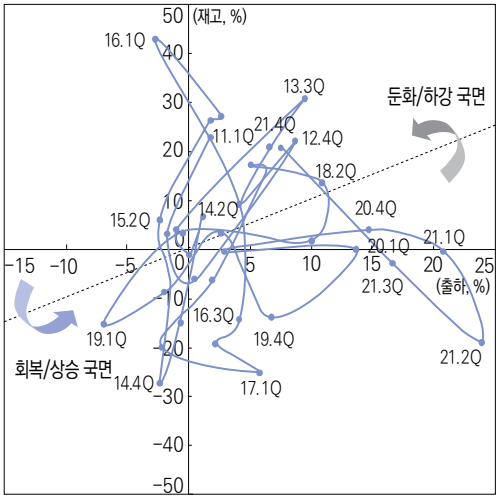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2.7%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하였고, 재고출하-순환도는 출하 증가폭(+3.9% → +4.1%,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과 재고 증가폭(11.6% → 11.8%)이 확대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8.3%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12.1분기 ~ 2021.4분기)



자료: 통계청.
주: 2021년 4분기는 2021년 10월~2022년 1월 평균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2012.1분기 ~ 2021.4분기)



자료: 통계청.
주: 2021년 4분기는 2021년 10월~2022년 1월 평균

□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수출 증가세를 기록

● 13대 주력 산업 수출이 부분 증가, 특히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9개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반도체(24%), 석유화학(24.7%), 철강(40.1%)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 특히 석유제품(66.2%)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시현
- 다만, 자동차부품은 반도체 수급난 지속 및 해외공장 생산 차질 영향으로 소폭 감소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자동차	-13.1	24.2	74.8	6.5	4.9	-4.7	3.3	17.3	2.3	9.1
자동차부품	-17.3	22.2	123.1	14.8	-1.4	-1.2	-2.2	-1.0	14.2	-1.1
선박류	-2.0	16.4	11.9	-1.4	22.9	6.4	237.7	-49.0	-77.9	15.8
일반기계	-8.9	10.8	21.2	15.6	9.9	12.6	11.6	6.1	13.9	0.9
철강	-14.5	37.0	50.4	45.1	47.7	48.5	45.7	48.9	49.9	40.1
석유화학	-16.4	54.8	80.3	64.1	54.1	69.2	62.9	34.2	40.2	24.7
석유제품	-40.6	57.7	112.6	71.6	113.1	148.1	121.7	79.4	89.1	66.2
섬유	-13.3	14.0	46.0	9.9	16.8	21.7	16.9	12.6	22.2	15.3
가전	0.7	24.0	66.5	11.7	15.3	13.7	20.9	11.6	19.7	14.6
무선통신기기	-6.4	22.9	38.5	25.7	12.1	15.5	16.4	4.8	1.9	8.2
컴퓨터	57.2	25.2	8.9	34.0	56.5	52.6	73.5	44.7	49.3	44.5
반도체	5.6	29.0	29.7	36.3	34.6	28.8	40.1	35.1	24.2	24.0
디스플레이	-12.2	18.9	36.0	25.2	5.8	5.3	10.4	2.0	10.0	39.2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2월 실적은 잠정치.

(2) 자동차

□ 생산 대수 감소 속에도 친환경 자동차 수출 확대로 수출 증가세 지속

● 2월 내수는 국산차의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의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년동월비 1.0% 감소

- 국산차는 내수 판매가 전월비 9.4%, 전년동월비 1.5% 증가하며 공급이 확대되는 모습을 시현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9.5	4.5	22.6	-8.9	-4.1	-5.1	7.7	-9.3	-
	생산(전기비)	-	-	-6.1	-2.7	-0.9	2.5	4.4	3.2	-
	출하	-9.3	5.1	23.8	-6.9	-4.8	-5.7	5.9	-6.8	-
	재고	9.3	3.8	1.5	0.0	3.8	1.2	3.8	3.8	-
	가동률	-11.3	2.2	18.6	-11.1	-5.4	-5.3	5.6	-11.6	-
	내수판매동향	5.7	-9.0	-12.9	-15.0	-14.8	-16.7	-6.5	-19.5	-1.0
교역 동향	수출	-14.5	23.6	88.3	9.2	2.8	1.5	10.4	6.0	5.6
	수입	7.3	10.2	37.2	13.2	-20.0	-20.7	-21.0	2.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수입차는 등록 대수가 전월비 12.1% 증가하였지만, 전년동월비 12.7% 감소하며 부품 조달 문제로 인한 공급 물량 부족이 지속되는 모습

● 2월 수출은 수출단가 상승과 친환경 자동차 증가로 전년동월비 5.6% 증가

- 완성차는 전기차가 95.5% 증가하며 9.1% 증가
- 자동차부품은 미국과 EU 지역으로의 감소로 1.1% 감소

● 1월 생산은 일부 생산공장의 설비공사와 부품 공급 부족으로 전년동월비 9.3% 감소

- 일부 생산공장의 설비공사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과 출하가 각각 9.3%와 6.8% 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 11.6% 하락
- 전월비 기준으로는 3.2%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

(3) 조선

□ 생산지표 위축 지속, 수출입은 증가

● 1월 선박 발주는 전년동월비 38.2% 증가한 383만 CGT를 기록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불안에 휘말리면서 신조 시장 약화 우려

- 1월 우리나라는 머스크, MSC, 조디악 등으로부터 컨테이너선과 안젤리쿠시스, 마란가스 등으로부터 LNG운반선을 대량 수주하여 전년동월비 101.6% 증가한 195만 CGT를 기록하여 중국(167만 CGT)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
- 건조량 대비 수주량이 많아 향후 건조 일감인 수주잔량은 1월 말 기준 약 3,020만 CGT로 전월비 70만 CGT가 증가하여 충분한 생산물량을 확보
- 신조선가 지수는 3월 4일 기준 154로 보합세를 보이고, BDI(벌크선운임지수)는 동일 기준 2,148로 중국 동계올림픽 이후 회복,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1월 7일 5,110에서 3월 4일 4,747로 7주 연속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생산, 출하, 가동률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 중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8.6	-16.7	-17.6	-22.8	-12.3	-13.7	-9.4	-12.1	-
	생산(전기비)	-	-	-3.3	-2.8	3.3	0.2	2.5	-0.9	-
	출하	7.2	-16.5	-17.5	-21.8	-10.0	-11.0	-7.8	-9.3	-
	가동률	21.1	-12.4	-9.8	-18.9	-12.2	-14.1	-10.6	-7.5	-
교역 동향	수출	-2.0	16.4	11.8	-1.4	22.9	237.7	-49.0	-77.9	15.8
	수입	44.4	6.2	-5.6	43.1	-11.5	5.1	7.8	7.2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KITA.net.
주: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 2월 수출은 다수의 유조선과 가스운반선이 수출되면서 전년동월비 15.8% 증가했는데, 전년동월에 선박 수출이 많지 않았고 해양플랜트 수출도 없어 기저효과도 있던 것으로 추정

- 전년동월에는 해양플랜트 수출이 없고 LNG운반선과 유조선을 중심으로 수출되면서 규모가 크지 않아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

● 1월 수입은 일본과 마셜제도로부터 중고선의 반입과 핀란드로부터 선박용 디젤엔진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7.2% 증가

- 벌크선 수입은 없었지만, 일본, 마셜제도 등으로부터 유조선의 반입이 81.7% 증가
- 중국, 프랑스, 핀란드로부터 선박용 부품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선박용 부품 수입은 노르웨이에서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76.6% 감소한 반면, 선박용 디젤엔진의 수입은 핀란드에서 대량 유입되면서 33.8% 증가

(4) 일반기계

□ 생산 증가폭 둔화,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

● 1월 생산은 내수 및 설비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1% 증가하여 증가폭 둔화

- 국내 기계수주가 11.6%의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지만, 내수 둔화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생산 증가폭은 크게 축소
  * 기계류 내수출하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11월) 2.0 → (12월) -2.0 → (2022년 1월) 2.3
  *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11월) 8.8 → (12월) 6.6 → (2022년 1월) 0.6
  * 국내 기계수주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11월) 25.0 → (12월) 49.7 → (2022년 1월) 11.6
- 재고율(재고/출하)은 출하 감소와 재고 확대 지속으로 전월비 3.8%포인트 상승
  * 재고율(%): (2021년 11월) 107.6 → (12월) 108.8 → (2022년 1월) 112.4
- 가동률은 내수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8.2%의 상승세 지속

●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0.9% 증가한 39억 6,100만 달러로, 증가폭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12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1	11.9	20.9	7.9	7.7	6.7	8.1	1.1	-
	생산(전기비)	-	-	3.0	-1.2	1.2	0.8	6.5	-3.2	-
	출하	1.2	11.1	21.0	7.2	6.9	5.4	6.9	-1.2	-
	재고	7.5	15.3	21.2	15.6	15.3	14.3	15.3	15.9	-
	가동률	-6.9	5.1	13.5	6.1	6.1	6.2	6.5	8.2	-
교역 동향	수출	-8.9	10.8	21.2	15.6	9.9	11.6	6.1	13.9	0.9
	수입	-0.2	10.2	14.0	5.6	8.7	9.7	10.0	4.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 코로나19 경기 회복을 위한 건설,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자원수출국의 주요 프로젝트 재개로 건설·광산기계 및 공작기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 및 권역에서 수출 증가세 지속

  * 2월 주요국 수출(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월비): 미국(7.9, 17.2%), EU(5.2, 6.4%), 중남미(2.5, 20.5%), 중동(1.5, 34.5%)

● 1월 수입은 전방산업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수입 수요 증대로 전년동월비 4.3% 증가한 24억 7,800만 달러 기록

- 주요 품목별로는 제지·인쇄기계(97.4%),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62.4%), 건설·광산기계(58.1%), 농기계(50.2%)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식품가공포장기계(-39.3%), 섬유 및 화학기계(-34.7%),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22.3%) 등은 감소

(5) 철강

□ 생산은 증가로 전환, 수출은 가격요인으로 증가 지속

● 1월 생산은 건설용 내수 회복과 수출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2.6% 증가

-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등 수요산업의 내수 회복과 수출단가 강세에 따른 수출 확대로 증가로 전환
- 품목별로는 철근, H형강, 중후판이 증가한 반면 선재는 전월에 이어 약세 지속

  *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철근 12.1%, 중후판 8.2%, H형강 6.2%, 냉연강판 2.3%, 선재 -10.9%, 열연강판 -0.2%

● 2월 수출은 건설, 기계 등의 수요산업 경기 회복과 원자재 가격 강세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40.1% 증가

- 1톤당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비 37.9%로 상승하며 상승세를 지속
- EU, 중동 및 중남미 지역에서의 건설 및 인프라 수요 확대, 인도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판재류, 봉형강 및 강관 수출이 증가하며 1월에 이어 40% 이상의 증가세를 지속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3	5.8	13.1	11.9	1.7	3.0	-0.4	2.6	-
	생산(전기비)	-	-	2.4	1.7	-3.7	2.6	-1.4	2.1	-
	출하	-6.1	5.3	17.7	5.4	-2.0	-2.5	-3.0	0.8	-
	재고	-15.8	15.8	-26.5	-6.5	15.8	8.0	15.8	18.2	-
	가동률	-5.9	5.9	13.3	11.6	1.8	2.9	0.3	2.7	-
교역 동향	수출	-14.5	36.9	50.4	45.2	47.6	45.7	48.7	49.5	40.1
	수입	-24.7	50.1	40.5	113.1	58.5	59.6	43.5	51.8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 철강재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1년 2월) 944 → (2022년 2월) 1,302(37.9%)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동 95.1%, EU 76.0%, 중남미 46.6%, 중국 21.7%, 인도 8.5% 등

● 1월 수입은 수입물량 확대 및 수입단가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51.8% 증가

- 품목별로는 중후판, 강관, 철근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말레이시아, 일본, 러시아, 중국 등으로부터의 증가폭이 확대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말레이시아 386.5%, 브라질 186.0%, 인도 174.9%, 러시아 166.4%, 베트남 108.5%, 일본 87.3%, 남아프리카공화국 65.1%, 대만 47.8%, 미국 40.3%, 중국 23.2% 등
- 수입단가는 전년 12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1톤당 1,2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물량 증가가 더해져 수입금액 증가폭은 전월보다 확대되는 양상

(6) 정유

□ 고유가 및 타이트한 글로벌 수급상황 지속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 유지

● 1월 생산은 내수 및 수출물량의 동반 확대로 전년동월비 4.2% 증가

- 내수는 운송용 및 석유화학제품용 중심의 수요 확대 지속으로 15.4% 증가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아스팔트(79.4%), 항공유(33.5%), 휘발유(20.2%), 나프타(17.4%), 윤활유(13.9%), LPG(13.2%), 경유(12.8%), 벙커C유(12.7%)
- 수출물량은 휘발유, 경유 및 항공유 등 운송용 석유제품의 확대로 27.5% 증가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벙커C유(1,095.8%), 윤활유(79.8%), 휘발유(41.3%), 항공유(43.9%), 경유(24.2%), 나프타(-33.9%), 아스팔트(-29.3%), LPG(-31.1%)

● 2월 수출액은 단가 상승 및 물량 확대로 전년동월비 66.2% 증가

-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 및 글로벌 수요 우위 상황 지속으로 12개월 연속 증가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상승률): (2021년 2월) 60.9 → (2022년 2월) 92.4(51.7%)
  * 석유제품 수출단가(달러/배럴, 상승률): (2021년 2월) 541.3 → (2022년 2월) 724.1(33.8%)
  * 석유제품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1년 2월) 23.9 → (2022년 2월) 39.7(66.2%)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7.9	3.1	7.4	5.9	7.6	7.6	7.7	4.2	-
	생산(전기비)	-	-	4.7	0.2	1.3	-0.3	0.6	-4.1	-
	출하	-8.2	-0.3	2.6	1.8	6.1	3.1	6.6	8.8	-
	재고	-10.0	13.2	-6.4	8.6	13.2	18.3	13.2	0.4	-
	가동률	-10.0	1.2	5.2	4.2	6.2	6.2	6.4	3.4	-
	내수판매동향	-5.8	6.8	5.0	9.6	12.6	8.5	16.7	15.4	-
교역 동향	수출	-40.6	57.7	112.6	71.6	113.1	120.7	80.2	89.3	66.2
	수입	-26.2	86.0	151.9	129.8	202.9	193.0	168.5	68.7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수출물량은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및 전방산업 회복으로 증가 추세 지속
- 지역별로는 대중 수출이 석유제품 관세 부과 영향으로 9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주요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세 유지

  * 지역별 수출 증가율(%): 아세안(257.0), 일본(12.6), 중국(-41.9)

(7) 석유화학

□ 전방산업 활성화로 수출 호조세 지속과 수출선 다변화

● 1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비 각각 3.8% 및 5.4% 증가

- 생산은 전방산업 수요 호조로 전년동월비 3.8% 증가하였지만, 수익성 악화로 증가세 둔화
-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에틸렌 가격은 설비 증설과 글로벌 전방수요 둔화세로 하락세 지속
- 재고는 마진 상승을 위한 재고 축적 움직임 강화로 17.8% 증가

- 베이징 올림픽 준비와 춘절을 맞이해 중국 북부지역 공장 가동 중단으로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의 가동률도 조정

● 2월 수출은 수출단가 상승 및 전방산업 경기 회복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 유지
- 국제유가는 배럴당 94.1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비 54.5% 상승
- 글로벌 설비 가동률의 하락으로 공급부담은 완화되었으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화학제품 가격 상승세 지속(1톤당 1,470달러)
- 중국(의료, 위생용품), EU(제조업 생산 증가) 등의 기존 주요 수출국과 인도(단가 상승 및 화학시장 성장), CIS(재고 축적) 등의 신흥수출국으로의 수출 증가

● 1월 수입은 생산활동 증가 및 러시아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0.4% 증가
- 생산활동의 증가로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미국, 중동산 제품의 수입액은 각각 20.6%, 1.4% 감소
- 러시아 정세 불안으로 재고 확보를 위한 부틸고무, 기타 합성수지 등 주요 수입품목에서 수입액 96.4% 증가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2	7.6	14.5	8.7	4.9	7.7	4.9	3.8	-
	생산(전기비)	-	-	1.6	1.0	-1.4	-1.7	2.7	-1.1	-
	출하	-3.4	5.5	9.7	2.8	6.3	10.5	1.8	5.4	-
	재고	-6.4	23.7	3.0	27.0	23.7	18.1	23.7	17.8	-
	가동률	0.2	2.8	7.7	3.5	0.5	3.3	1.9	1.9	-
교역 동향	수출	-16.4	54.8	80.3	64.1	54.2	62.8	34.5	40.2	24.7
	수입	-15.1	36.1	71.8	44.4	18.6	16.6	9.1	10.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통계는 '석유화학제품(MTI 21)' 당월.

(8) 섬유

□ 수출 5개월 연속 증가, 생산 증가세 지속

● 1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비 각각 7.8% 및 3.8% 증가

- 생산은 기업의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월비 10.7% 증가
- 재고는 전년동월비 4.9% 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 17.1% 상승

* 화학섬유 증가율(전년동월비): (2021년 11월) 4.5% → (12월) -1.7% → (2022년 1월) -7.8%

* 염색가공 증가율(전년동월비): (2021년 11월) 21.5% → (12월) 14.4% → (2022년 1월) 25.9%

* 봉제의류 증가율(전년동월비): (2021년 11월) 9.5% → (12월) 12.4% → (2022년 1월) 11.6%

* 편조의류 증가율(전년동월비): (2021년 11월) 9.4% → (12월) 41.0% → (2022년 1월) 13.9%

* 기타 섬유제품 증가율(전년동월비): (2021년 11월) 7.9% → (12월) -11.1% → (2022년 1월) -10.5%

● 2월 수출은 9억 7,2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15.3% 증가하여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 오미크론 영향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직물·의류 등 수요를 바탕으로 아세안·중국 등 주요 소싱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4.5	6.0	21.3	6.1	5.0	6.2	7.3	7.8	-
	생산(전기비)	-	-	19.0	7.7	3.8	5.4	7.4	10.7	-
	출하	-11.9	4.5	15.5	1.8	2.9	3.8	5.9	3.8	-
	재고	-3.9	-2.6	-3.5	-2.3	-2.6	0.0	-1.9	-4.9	-
	가동률	-11.9	11.5	33.3	10.0	12.1	15.3	15.3	17.1	-
교역 동향	수출	-13.3	9.9	46.0	9.9	16.6	14.2	14.0	22.2	15.3
	수입	-5.3	12.9	16.6	3.6	24.0	12.5	12.9	25.7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 세부 품목별로는 섬유사, 섬유직물, 섬유제품이 각각 전년동월 대비 25.0%, 25.4% 및 13.4% 증가
  * 섬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2021년 2월) 8.4(-24.1%) → (2022년 2월) 9.7(+15.3%)
  * 2월 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아세안 2.9(+21.2%), 중국 1.2(+26.6%), 미국 1.2(+3.8%)

(9) 가전

□ 2월 수출 완제품·부품 수출 모두 호조

● 1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4.1% 증가, 전월비로는 0.5% 증가
- 생산은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증가세를 유지
  * 1월 가전제품 판매액 증가율(전년동월비): (2021) 37.1% → (2022) -3.3%
- 생활가전, 영상음향기기가 판매 호조로 증가한 반면, 조명기기는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감소
- 영상음향기기 재고는 판매 호조로 줄었으나 조명기기 재고가 증가하면서, 가전 재고는 전년동월비 2.2% 증가
- 가동률은 생활가전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5.0% 상승

● 2월 수출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선진국 수요 호조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비 14.6% 증가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었고, 부품 수요도 증가하면서 멕시코, 베트남, 중국으로의 수출도 크게 증가
  * 1월 주요 부품 수출액 증가율(전년동월비): 컬러TV부품(124.3%), 냉장고부품(35.3%), 난방 및 전열기기부품(26.8%)

● 1월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지역에서도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11.5% 증가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6	1.5	7.1	-5.1	1.0	3.9	0.9	4.1	-
	생산(전기비)	-	-	2.2	-2.0	1.5	-0.3	6.3	0.5	-
	출하	1.0	-1.4	2.3	-7.4	0.1	-6.6	10.3	1.4	-
	재고	11.2	5.3	17.5	-4.9	0.6	5.5	3.3	2.2	-
	가동률	2.8	1.4	4.4	-4.9	4.5	6.6	6.5	5.0	-
교역 동향	수출	0.5	24.0	66.5	11.7	15.4	21.2	11.6	19.7	14.6
	수입	6.3	19.1	24.1	12.8	5.9	16.8	-0.9	11.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 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 대베트남 수입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인력 부족에 따른 생산 감소로 감소
  * 1월 아시아 주요국 수입액 증가율(전년동월비): 말레이시아(62.7%), 중국(16.1%), 태국(15.7%), 인도네시아(10.3%), 베트남(-10.3%)

(10) 무선통신기기

□ 수출 16개월 연속 증가, 출하 및 가동률은 하락

● 2월 수출은 국내기업의 신제품 출시 효과와 중국으로의 국산 휴대폰 부품 수출 증가로 인해 전년동월비 8.2% 증가
-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폴더블폰 및 고급형 스마트폰용 부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대중 수출은 전년동월비 112.0% 증가

● 1월 생산은 해외 생산 증가와 함께, 작년 11월 이후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휴대폰용 반도체 부족 사태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비 24.6% 감소

- 부품 조달 문제와 해외 거점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가동률이 전년동월비 24.5% 하락하고 출하도 32.5% 감소

  * 중국 외주업체를 통한 국내기업 중저가 휴대폰 위탁생산 비중이 2배 수준으로 증가

● 1월 국내 휴대폰(이동통신 가입자 수 기준) 시장은 전년동월비 1.7% 신장하고 전월비로는 0.3% 소폭 신장

- 1월은 전통적 비수기이며 2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에 대한 대기 수요가 작용하며 국내 휴대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
-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점진적 확대는 원격 제어, 휴대용 카드 단말, 휴대용 와이파이 핫스폿 등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용 사업 및 산업용 회선 신규가입 증가 추세에 기인

● 1월 수입은 휴대폰 및 부품, 무선 교환기 및 중계기 수입 감소로 전년동월비 31.3% 감소

- 품목별로 휴대폰과 휴대폰 부품이 각각 62.7% 및 21.3% 감소했으며,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가 3.9% 감소

  * 2021년 10월 출시된 외산 신규 휴대폰으로의 교체수요가 감소하고 2월 출시될 국내 기업의 신규 플래그십 모델로의 교체 대기 수요 증가로 휴대폰 수입이 감소

  * 국내 무선통신기기 생산 및 가동률 저하에 따라 부품 수입이 감소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1.6	22.5	40.5	20.4	8.0	12.7	-0.8	-24.6	-
	생산(전기비)	-	-	0.1	-5.1	3.6	10.5	4.0	-19.0	-
	출하	-14.4	24.6	35.0	15.4	11.3	11.4	15.3	-32.5	-
	재고	6.0	-1.0	-9.9	-5.1	-1.0	20.2	-1.0	3.7	-
	가동률	-7.9	25.5	23.5	24.9	22.8	22.6	18.7	-24.5	-
교역 동향	수출	-6.4	22.8	38.5	25.7	12.1	16.3	4.3	1.9	8.2
	수입	-4.9	12.5	0.5	8.7	18.7	-3.6	10.3	-31.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11) 반도체

□ 반도체 수출 지속해서 증가

●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4.0% 증가한 103억 8,000만 달러로 큰 폭의 증가세가 수개월간 지속

- 2020년 7월 이후 수출은 20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10개월 연속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
-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매월 최소 24.0%를 넘어서며 매우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동 기간 최고: 2021년 8월(+42.6%), 최저: 2022년 2월(+24.0%))

● 1월 반도체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비 각각 34.3% 및 12.8% 증가하여 지속적인 매출 호조세

-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생산은 전년동월비 6.1% 증가
- 재고는 전년동월비 38.8% 증가하였으나 과잉 수준은 아니며, 가동률은 11.4%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요 확산에 따라 국내 생산은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2.7	29.7	27.2	33.9	34.2	33.9	31.4	34.3	-
	생산(전기비)	-	-	-0.5	11.3	4.1	2.9	7.4	6.1	-
	출하	27.5	32.3	40.8	33.4	21.2	30.4	18.0	12.8	-
	재고	8.7	18.7	-25.6	-2.9	18.7	21.5	20.1	38.8	-
	가동률	3.7	7.2	7.1	9.1	7.9	6.2	9.7	11.4	-
교역 동향	수출	5.6	29.0	29.7	36.3	34.6	40.1	35.1	24.2	24.0
	수입	6.9	22.1	25.1	20.6	28.4	32.5	39.6	26.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2021년 11월 및 12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022년 1월 수출은 추정치.

● 역대 2월 반도체 수출액 중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반도체 수출 규모가 예년에 비해 지속 증가

- 통상 1/4분기는 전방산업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난 1월과 2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실적은 역대 최고를 기록
- 메모리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수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미치는 계절적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12) 디스플레이

□ OLED 패널 고부가가치화로 수출액 대폭 증가

● 1월 생산은 스마트폰 생산 확대로 패널 생산 확대

- 생산은 2021년 하반기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악화에 따라 스마트폰 출시 시기가 2022년 1분기로 연기되어 전년동월비 1.6% 증가
-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패널인 QD-OLED를 채택한 첫 제품이 발매(2022년 3월)되어 패널 생산 확대로 이어질 전망

● 2월 수출은 스마트폰용 패널 수출 증가와 패널 고부가가치화로 전년동월비 39.2% 증가하여 11개월 연속 증가

- LCD 수출은 패널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8.8% 증가로 전환
-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확대로 OLED 수출 수요 증가 및 패널의 고부가가치화로 OLED 수출은 58.0% 증가, 작년 9월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

  * OLED 출하량(백만 대): 모바일: (2021년 2월) 40.1 → (2022년 2월 추정) 40.5
  TV: (2021년 2월) 0.5 → (2022년 2월 추정) 0.73

- 패널 가격 상승으로 주요 수출지역인 아세안, 중국 모두 수출 증가

  * 주요 지역 수출액(억 달러): 아세안 55.8, 중국 5.3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3	-2.8	3.2	-4.0	-6.2	-7.6	-2.2	1.6	-
	생산(전기비)	-	-	-3.0	-1.7	3.1	4.6	4.7	0.5	-
	출하	-8.8	-7.6	-4.3	-9.0	-9.3	-11.4	-4.7	6.7	-
	재고	-9.2	18.1	-15.1	-3.1	18.1	23.0	18.1	12.4	-
	가동률	-1.7	-2.2	3.1	-4.2	-3.3	-5.2	2.8	9.3	-
교역 동향	수출	-12.2	18.9	36.0	25.2	5.8	10.4	2.0	10.0	39.2
	수입	-29.6	-12.8	-23.5	-0.1	22.5	66.5	0.2	79.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02 서비스산업

(1) 생산

□ 1월 생산, 전년동월비 4.8% 증가

● 1월 서비스산업 생산은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등 다수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4.8% 증가(전월비 0.3% 감소)

● 지식서비스산업은 금융·보험업의 실적 악화로 전년동월비 1.1% 증가

● 서비스산업 중 생산·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14.1%)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도매업(4.1%), 소매업(9.1%)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4.6% 증가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월
서비스 총지수	108.4	106.2	110.9	110.0	116.5	114.7	123.2	109.7
상승률	1.4	-2.0	4.4	3.9	5.4	5.4	5.8	4.8
전기비	-	-	-	0.9	1.4	2.3	-0.4	-0.3
도·소매	-0.4	-2.6	4.0	3.6	4.1	4.0	4.1	4.6
운수·창고	0.0	-14.2	6.4	7.0	10.6	9.9	12.5	13.5
숙박·음식점	-1.0	-18.5	1.4	-1.5	18.8	14.3	38.6	38.1
정보통신	3.5	1.4	5.2	6.9	7.4	8.2	8.3	7.1
금융·보험	1.7	14.0	8.5	6.3	3.7	4.8	-0.3	-5.0
부동산	0.4	5.5	0.8	0.4	0.1	1.2	-3.6	-1.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4	0.1	2.7	0.2	3.6	3.8	5.3	1.9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2.3	-9.9	2.3	3.0	4.8	5.2	4.7	6.0
교육	-0.5	-4.7	1.7	1.6	2.5	2.5	3.1	2.8
보건·사회복지	8.1	1.4	3.3	4.5	4.3	4.0	5.8	5.9
예술·스포츠·여가	1.2	-32.6	6.8	7.6	19.5	14.5	33.0	57.4
협회·수리·개인서비스	-1.5	-8.2	1.1	-0.6	5.4	5.3	5.9	1.1
수도·하수·폐기물처리	-0.4	3.3	2.5	3.4	-0.2	2.3	1.1	-1.9
지식서비스	3.1	3.9	5.0	4.5	4.2	4.6	3.8	1.1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 운수·창고업은 항공운송업(46.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24.9%)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13.5% 증가

- 항공운송업은 2021년 3월 실적 개선 이후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9월, 27.9% → 10월, 32.8% → 11월, 35.0% → 12월, 40.2% → 2022년 1월, 46.2%)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고용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45.0%), 음식점업(32.4%), 주점업(54.8%) 등 모든 업종의 실적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38.1% 증가

- 코로나19 이후 실적 악화세가 지속되었던 주점업은 12월에 65.7%, 1월 54.8%로 큰 폭의 증가세 유지

● 정보통신업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27.6%), 정보서비스업(16.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5%), 출판업(6.0%)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7.1% 증가

- 정보서비스업은 2020년 10월 이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며 정보통신업 증가를 주도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금융업(6.8%)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34.2%)의 실적 악화로 인해 전년동월비 5.0% 감소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2020년 1월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 8월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0%)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5.9%)의 실적 둔화로 인해 전년동월비 1.4% 감소

● 전문·과학·기술서비스는 연구개발업(7.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1%)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3.2%)의 실적이 다소 둔화되어 전년동월비 1.9% 증가(전월비 40.1% 감소)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임대업(부동산 제외, 5.5%),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4.9%), 사업지원서비스업(5.1%) 등 모든 업종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6.0% 증가

- 임대업(부동산 제외)은 운송장비 임대업(9.7%)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실적 호조 주도

● 교육서비스업은 초등교육기관(1.9%), 중등교육기관(-1.3%), 고등교육기관(-2.%)의 실적 감소 및 둔화에도 불구하고, 학원(20.6%)의 실적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2.8% 증가

* 교육서비스업은 2020년 3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2021년 3월 증가세 전환 이후 소폭의 증가세 유지

● 보건·사회복지업은 병원, 의원 등 보건업(6.0%), 사회복지서비스업(4.3%)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5.9%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는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81.4%), 스포츠서비스업(60.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24.9%),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11.8%)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57.4% 증가

(2) 고용

□ 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45만 6,000명(2.5%) 증가

● 1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운수·창고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비 45만 6,000명(2.5%) 증가

● 전체 서비스업 고용 증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보건·사회복지는 전년동월비 4,000명(0.2%) 증가에 그치며, 2021년 1월 이후 최소 증가폭 기록

- 전월비 역시 2021년 11월 이후 감소세 지속(11월 -2만 3,000명, 12월 -22만 8,000명, 2022년 1월 -8만 5,000명)

● 운수·창고(12만 8,000명, 8.4%), 전문·과학·기술서비스(10만 9,000명, 9.3%),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8만 9,000명, 6.7%), 정보통신(9만 7,000명, 11.5%) 등의 업종도 전년동월비 증가

● 숙박·음식점업은 전년동월비 4만 9,000명(2.4%)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은 전년동월비 4만 4,000명(-1.3%) 감소

- 도·소매업은 2020년 1월 이후 매월 전년동월비 10만 명 이상 감소하였으나, 2021년 11월부터 감소세 완화

● 협회·수리·개인서비스는 전년동월비 4만 9,000명 감소하며 전체 서비스 업종(공공행정·국방)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지식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29만 6,000명(4.3%) 증가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월
총취업자 수	19,111	18,866	19,173	19,449	19,456	19,557	19,291	18,999
증감률	1.7	-1.3	1.6	2.8	3.1	5.1	6.5	2.5
전기비	-	-	-	0.9	0.04	0.2	-1.4	-1.5
도·소매	-1.6	-4.4	-4.3	-4.0	-3.0	-2.3	-1.5	-1.3
운수·창고	1.8	3.6	7.0	8.9	9.8	8.5	7.1	8.4
숙박·음식점	2.7	-6.9	-2.1	-0.1	0.0	1.6	6.5	2.4
정보통신	2.8	-1.6	6.4	8.7	11.6	10.8	11.7	11.5
금융·보험	-4.7	-2.7	2.8	2.7	2.6	2.1	1.0	-1.4
부동산	5.3	-7.0	2.7	6.5	10.0	12.0	12.1	5.8
전문·과학·기술서비스	5.5	0.6	4.7	5.0	6.9	6.4	9.3	9.3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0.1	2.7	3.7	4.6	2.7	3.1	6.9	6.7
공공행정·국방	-3.0	3.3	2.8	4.0	-4.7	4.9	9.7	-4.9
교육	2.0	-4.6	2.3	3.2	6.1	6.4	6.9	5.6
보건·사회복지	7.8	5.9	8.5	10.5	10.6	17.6	15.8	0.2
예술·스포츠·여가	11.3	0.3	-5.8	-6.9	-1.0	1.3	14.3	-0.9
협회·수리·개인서비스	-0.3	-3.5	-4.5	-3.7	-3.9	-0.5	-0.1	-4.3
수도·하수·폐기물처리	6.6	12.9	10.5	13.0	6.8	4.3	10.1	9.5
지식서비스	3.6	0.2	5.4	6.6	8.0	10.2	10.0	4.3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2021년 3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큰 폭의 증가세 유지

●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108만 6,000명 증가(전월비로는 15만 3,000명 감소)

- 전년동월비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2021년 7월) 38.0 → (8월) 42.0 → (9월) 63.6 → (10월) 51.7 → (11월) 89.2 → (12월) 108.6 → (2022년 1월) 50.9

- 전월비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2021년 7월) 4.2 → (8월) -2.5 → (9월) 7.9 → (10월) 1.5 → (11월) 3.9 → (12월) -15.3 → (2022년 1월) 23.7

(3) 서비스수지

□ 1월 서비스수지, 4억 4,900만 달러 적자

● 1월 서비스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가공서비스수지의 적자 확대 및 건설수지,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등의 흑자 감소로 4억 4,900만 달러 적자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월 1억 4,500만 달러 흑자에서 7억 7,300만 달러 적자로 전환(전월비 9억 2,800만 달러 감소)

-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전월비 7,900만 달러 증가하였으나,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컴퓨터소프트웨어 복제 및 배포권 사용료 수입이 각각 전월비 5억 700만 달러, 2억 3,600만 달러 감소하며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 적자 전환 주도

● 가공서비스수지는 전월 4억 5,600만 달러에서 5억 6,100만 달러로 적자 규모 확대(전월비 1억 500만 달러 감소)

● 건설수지는 전월 5억 3,600만 달러 흑자에서 2억 5,700만 달러 감소한 2억 7,900만 달러로 흑자 규모 대폭 감소

●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는 흑자 규모가 전월 5억 400만 달러에서 2억 5,900만 달러로 2억 4,500만 달러 감소

- 정보서비스수지는 전월비 2억 9,600만 달러 증가하였으나, 컴퓨터서비스수지가 전월비 5억 4,700만 달러 감소하여 전체 수지의 흑자 규모 대폭 감소

● 운송수지는 해상운송수지의 흑자 대폭 증가로 전월비 7억 300만 달러 증가한 23억 1,600만 달러 흑자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월
서비스수지	-26,845	-16,190	-3,108	498	140	-269	-236	-449
가공서비스	-7,611	-5,685	-5,115	-1,261	-1,292	-444	-456	-561
유지보수	-348	-913	-1,006	-194	-383	-88	-185	-137
운송	-1,734	2,132	15,427	4,724	5,644	1,718	1,613	2,316
여행	-11,872	-5,630	-6,226	-1,593	-1,633	-505	-666	-562
건설	6,776	4,770	4,100	774	1,199	342	536	279
보험	-256	-336	-295	-63	141	46	59	-66
금융	921	1,757	1,647	379	418	137	159	92
지식재산권 사용료	-2,157	-3,034	-3,059	-676	-617	-326	145	-773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2,461	1,604	3,515	1,096	709	45	504	259
기타 사업서비스	-12,391	-10,410	-12,222	-2,767	-4,129	-1,243	-1,954	-1,231
개인·문화·여가	271	184	783	240	193	54	84	42
정부	-905	-629	-658	-159	-110	-4	-75	-108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해상운송수지는 전월 10억 5,700만 달러에서 17억 6,400만 달러로 흑자 규모가 7억 700만 달러 증가하여 전체 운송수지 흑자 증가 주도

● 기타 사업서비스수지는 기술·무역·기타 사업서비스수지, 연구개발서비스수지 및 전문·경영컨설팅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 감소로 인해 전월비 7억 2,300만 달러 증가한 12억 3,100만 달러 적자

- 기술·무역·기타 사업서비스수지, 연구개발서비스수지, 전문·경영컨설팅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전월비 4억 2,500만 달러, 2억 4,700만 달러, 5,100만 달러 감소

● 여행수지는 여행지급의 감소로 전월 6억 6,600만 달러에서 5억 6,2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1억 400만 달러 감소

- 일반여행지급이 전월비 1억 8,200만 달러 감소하여 전체 여행수지 적자 규모 감소 주도

● 보험서비스수지는 전월 5,900만 달러 흑자에서 6,600만 달러 적자로 전환(전월비 1억 2,500만 달러 감소)

- 직접보험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비 2,100만 달러 감소하고, 재보험서비스수지가 전월비 1억 500만 달러 감소함에 따라 전체 보험서비스수지 적자 전환

Ⅳ 지역별 동향

01 개관

(1) 생산

● 1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4.3% 증가

- 전남(11.5%), 광주(9.5%), 세종(9.1%), 경기(8.3%) 등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북 (-10.9%), 충남(-2.7%), 울산(-2.4%) 등은 감소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0.4	-0.3	7.4	13.1	5.8	6.5	5.1	6.7	7.4	4.3
수도권	서울	-5.2	-13.4	5.3	7.3	7.7	4.4	11.2	2.0	0.7	2.8
	인천	-5.3	-0.9	7.5	15.9	6.2	5.3	4.4	10.9	1.2	-2.2
	경기	4.5	9.3	13.9	18.7	12.1	13.7	13.9	13.4	13.8	8.3
충청권	대전	10.1	-6.8	0.9	13.1	-9.7	-1.8	-0.5	-1.0	-3.8	-8.2
	세종	2.1	8.0	12.1	17.0	13.9	7.3	11.1	4.4	6.7	9.1
	충북	2.2	-6.6	11.3	16.7	10.7	10.3	11.8	7.3	12.2	7.8
	충남	-4.5	-2.3	0.9	7.4	-0.5	-3.3	-5.1	-4.6	-0.6	-2.7

(계속)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호남권	광주	-0.9	0.0	7.9	25.9	-8.2	9.4	-3.8	13.5	20.3	9.5
	전북	-6.1	-5.5	7.0	12.7	4.1	8.1	5.5	8.6	9.9	3.7
	전남	2.1	-0.8	8.9	9.6	11.5	12.7	11.4	13.8	13.0	11.5
대경권	대구	0.0	-11.0	10.0	28.7	6.7	6.4	-0.3	9.0	10.3	3.5
	경북	-2.0	-5.7	3.7	10.0	-2.7	3.3	0.2	3.0	6.9	-10.9
동남권	부산	-1.8	-6.1	0.6	2.1	1.2	6.4	8.8	5.6	5.1	6.8
	울산	1.3	-6.8	2.1	9.1	-2.1	-1.6	-5.0	-3.8	3.6	-2.4
	경남	1.5	-7.1	1.5	8.9	0.7	1.9	0.7	3.6	1.4	0.8
강원권		0.5	-5.3	0.4	2.3	0.8	1.7	-1.9	2.7	4.4	5.2
제주권		-2.6	-6.1	4.6	10.0	4.8	0.5	4.6	0.9	-2.9	14.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

(2) 고용

● 1월 전국 취업자 수는 2,695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4.4% 증가

- 감소지역 없이, 경기(8.6%), 제주(6.6%), 충북(5.8%), 충남(4.9%)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27,123 (1.1)	26,904 (-0.8)	27,273 (1.4)	27,467 (2.3)	27,645 (2.1)	27,611 (2.4)	27,741 (2.4)	27,795 (2.0)	27,298 (2.9)	26,953 (4.4)
수도권	서울	5,086 (0.1)	5,051 (-0.7)	5,055 (0.1)	7 (-12.5)	3 (-62.5)	4 (-50.0)	5,074 (0.5)	5,105 (0.1)	5,127 (2.2)	5,026 (2.7)
	인천	1,581 (0.4)	1,560 (-1.3)	1,563 (0.2)	439 (-0.9)	438 (-3.5)	442 (-0.2)	1,579 (1.2)	1,591 (1.1)	1,542 (0.6)	1,528 (1.5)
	경기	6,952 (2.4)	6,909 (-0.6)	7,150 (3.5)	4,636 (1.4)	4,636 (0.8)	4,657 (1.2)	7,314 (5.7)	7,375 (5.9)	7,329 (7.3)	7,287 (8.6)

(계속)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충청권	대전	772 (1.7)	780 (1.0)	785 (0.6)	12 (-20.0)	11 (-31.3)	4 (-66.7)	795 (0.6)	803 (0.9)	789 (1.3)	780 (3.6)
	세종	168 (13.5)	180 (7.1)	185 (2.8)	303 (-7.9)	314 (-3.1)	320 (-0.6)	188 (2.2)	185 (1.1)	180 (0.6)	180 (1.7)
	충북	880 (0.5)	890 (1.1)	897 (0.8)	1,260 (3.5)	1,249 (1.6)	1,246 (2.0)	921 (3.5)	917 (1.9)	903 (3.8)	879 (5.8)
	충남	1,196 (1.4)	1,176 (-1.7)	1,193 (1.4)	122 (-2.4)	124 (5.1)	114 (16.3)	1,239 (1.6)	1,219 (2.3)	1,169 (3.3)	1,123 (4.9)
호남권	광주	750 (0.1)	748 (-0.3)	745 (-0.4)	1,355 (7.1)	1,315 (3.5)	1,342 (2.5)	750 (0.1)	743 (-0.1)	728 (-3.1)	730 (0.8)
	전북	928 (1.4)	932 (0.4)	953 (2.3)	5,677 (2.8)	5,816 (5.5)	5,883 (7.0)	972 (1.7)	970 (0.4)	924 (0.8)	923 (3.4)
	전남	974 (1.4)	974 (0.0)	985 (1.1)	8 (-11.1)	8 (14.3)	10 (42.9)	1,017 (2.9)	1,008 (2.3)	964 (1.2)	964 (4.8)
대경권	대구	1,219 (-0.6)	1,184 (-2.9)	1,217 (2.8)	93 (-12.3)	91 (-11.7)	86 (-14.0)	1,232 (2.3)	1,232 (1.3)	1,211 (1.1)	1,205 (4.0)
	경북	1,430 (0.2)	1,418 (-0.8)	1,410 (-0.6)	685 (4.1)	697 (3.6)	699 (2.8)	1,450 (0.8)	1,437 (-0.5)	1,397 (0.9)	1,369 (2.6)
동남권	부산	1,676 (1.1)	1,640 (-2.1)	1,657 (1.0)	11 (22.2)	11 (22.2)	8 (14.3)	1,664 (0.8)	1,669 (0.4)	1,644 (0.6)	1,624 (1.8)
	울산	571 (-0.5)	560 (-1.9)	555 (-0.9)	23 (0.0)	24 (0.0)	25 (4.2)	564 (0.7)	564 (0.4)	551 (-0.7)	548 (1.5)
	경남	1,749 (0.2)	1,729 (-1.1)	1,732 (0.2)	155 (4.7)	154 (0.7)	152 (0.7)	1,755 (1.2)	1,743 (-0.2)	1,674 (-0.6)	1,674 (1.2)
강원권		811 (2.8)	795 (-2.0)	809 (1.8)	101 (0.0)	104 (3.0)	101 (14.8)	841 (2.9)	843 (3.7)	776 (6.6)	724 (4.5)
제주권		382 (2.7)	378 (-1.0)	383 (1.3)	213 (8.7)	207 (1.0)	211 (1.0)	386 (1.3)	393 (0.5)	389 (2.6)	389 (6.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3) 수출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5.5% 증가한 554억 달러를 기록

- 수출 증가세가 연속으로 이어지며 연간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지역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 전남(50.1%), 부산(47.1%)이 전월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경남(-39.1%)은 비교적 큰 감소를 기록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10.4	-5.5	25.7	42.0	26.5	24.5	24.2	31.9	18.3	15.5
수도권	서울	-11.2	-7.1	28.5	71.9	21.3	15.4	18.7	15.8	12.0	12.4
	인천	-6.8	-0.8	25.7	27.6	29.8	47.7	42.8	78.1	25.1	23.1
	경기	-18.6	-1.3	19.7	26.9	17.0	19.7	15.7	24.0	19.4	10.9
충청권	대전	-10.3	24.0	-1.3	12.6	-9.4	-7.9	-14.0	-0.4	-8.7	5.0
	세종	4.5	1.2	17.8	30.9	16.5	13.2	30.2	0.0	12.4	8.8
	충북	-5.0	12.6	15.7	19.3	20.4	1.6	4.2	1.5	-0.3	9.0
	충남	-13.1	-0.5	30.9	42.6	39.5	29.4	26.6	35.9	26.0	30.0
호남권	광주	-8.5	2.7	20.6	53.9	1.4	16.0	2.9	15.1	31.1	3.8
	전북	-16.5	-10.6	33.9	59.4	33.1	29.5	38.1	33.9	18.0	34.1
	전남	-11.0	-16.9	59.8	85.2	62.0	76.9	89.9	89.3	55.7	50.1
대경권	대구	-7.6	-16.4	26.6	64.7	23.4	24.9	14.9	30.7	28.8	33.8
	경북	-7.8	-1.6	19.5	31.7	20.2	14.4	8.9	18.7	15.7	5.8
동남권	부산	-3.4	-18.7	30.9	53.2	37.6	36.8	49.2	39.5	24.5	47.1
	울산	-0.9	-19.3	32.4	66.3	31.4	35.5	39.3	28.4	39.0	35.9
	경남	-2.2	-8.8	9.4	19.9	19.6	-2.5	3.9	40.5	-32.9	-39.1
강원권		-0.4	-3.1	34.9	47.7	39.0	21.4	49.4	11.9	7.4	25.4
제주권		-18.3	4.0	47.1	95.4	83.5	19.9	57.0	19.0	1.0	14.3

자료: 한국무역협회.

02 지역별 동향

(1) 수도권

● 서울: 생산 증가(2.8%), 고용 증가(2.7%), 수출 증가(12.4%)
- 주요 업종인 의복 및 모피제품(1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4%) 등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증가
- 제조업(2.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2.9%)의 증가 등으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품인 합성수지(47.2%), 자동차부품(4.0%), 반도체(7.5%) 등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

● 인천 : 생산 증가(2.8%), 고용 증가(1.5%), 수출 증가(23.1%)
- 기타 기계 및 장비(-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2.9) 등이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9.5%)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2.2%), 제조업(1.3%)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74.6%), 농약 및 의약품(131.4%), 철강판(51.0%)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 경기 : 생산 증가(8.3%), 고용 증가(8.6%), 수출 증가(10.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7.4%) 감소에도 불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7.0%) 등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45.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9.6%), 제조업(3.2%)의 전 부문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9.5%), 자동차(15.2%), 무선통신기기(18.8%)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2.9	-20.7	4.6	10.8	4.0	10.9	9.4	9.0	15.4	11.8
		전자부품 외	-1.2	-16.5	8.4	10.7	23.3	0.5	12.2	-0.6	-6.1	1.4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8.2	-5.8	6.0	15.0	0.9	8.5	-2.7	12.7	13.2	11.4
	인천	기계 및 장비	-10.2	-1.3	25.3	52.6	19.9	12.6	16.5	18.3	5.5	-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1.9	-9.9	-12.5	6.4	-26.6	-23.0	-35.1	-2.3	-26.7	-22.9
		전자부품 외	-7.8	2.9	23.8	74.8	35.6	-3.8	-10.5	5.9	-7.2	19.5
	경기	전자부품 외	6.2	21.1	25.2	22.7	25.6	29.7	34.7	31.0	24.3	27.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	-9.7	6.5	22.9	-7.8	-6.1	-21.6	-10.0	16.4	-7.7
		기계 및 장비	27.0	12.6	-4.8	20.5	-14.9	-14.2	-22.9	-21.5	-0.3	-37.4
고용	서울	농림·어업	8 (14.3)	7 (-12.5)	5 (-28.6)	7 (-12.5)	3 (-62.5)	4 (-50.0)	4 (-55.6)	4 (-42.9)	4 (-42.9)	4 (-33.3)
		제조업	449 (-0.2)	447 (-0.4)	442 (-1.1)	439 (-0.9)	438 (-3.5)	442 (-0.2)	443 (0.5)	441 (-0.9)	441 (-0.2)	454 (2.0)
		SOC·서비스	4,630 (0.1)	4,597 (-0.7)	4,609 (0.3)	4,636 (1.4)	4,636 (0.8)	4,657 (1.2)	4,628 (0.7)	4,661 (0.3)	4,683 (2.5)	4,569 (2.9)
	인천	농림·어업	15 (150.0)	14 (-6.7)	9 (-35.7)	12 (-20.0)	11 (-31.3)	4 (-66.7)	7 (-56.3)	5 (-58.3)	1 (-87.5)	1 (-88.9)
		제조업	328 (-7.1)	324 (-1.2)	312 (-3.7)	303 (-7.9)	314 (-3.1)	320 (-0.6)	312 (-3.7)	325 (0.9)	322 (0.3)	320 (1.3)
		SOC·서비스	1,238 (1.8)	1,221 (-1.4)	1,241 (1.6)	1,260 (3.5)	1,249 (1.6)	1,246 (2.0)	1,259 (3.3)	1,260 (1.7)	1,218 (1.2)	1,206 (2.2)
	경기	농림·어업	118 (5.4)	107 (-9.3)	107 (0.0)	122 (-2.4)	124 (5.1)	114 (16.3)	130 (6.6)	121 (18.6)	90 (30.4)	83 (45.6)
		제조업	1,259 (-4.7)	1,283 (1.9)	1,344 (4.8)	1,355 (7.1)	1,315 (3.5)	1,342 (2.5)	1,322 (1.5)	1,355 (4.1)	1,350 (2.1)	1,403 (3.2)
		SOC·서비스	5,575 (4.1)	5,519 (-1.0)	5,699 (3.3)	5,677 (2.8)	5,816 (5.5)	5,883 (7.0)	5,862 (6.7)	5,899 (6.0)	5,889 (8.2)	5,802 (9.6)
수출	서울		57,379 (-11.2)	53,332 (-7.1)	68,538 (28.5)	17,640 (71.9)	16,998 (21.3)	17,656 (15.4)	5,722 (18.7)	5,859 (15.8)	6,075 (12.0)	5,875 (12.4)
	인천		38,018 (-6.8)	37,701 (-0.8)	47,395 (25.7)	10,720 (27.6)	11,936 (29.8)	14,692 (47.7)	4,343 (42.8)	5,743 (78.1)	4,606 (25.1)	4,007 (23.1)
	경기		116,686 (-18.6)	115,157 (-1.3)	137,832 (19.7)	34,196 (26.9)	35,282 (17.0)	37,226 (19.7)	11,610 (15.7)	12,540 (24.0)	13,076 (19.4)	11,367 (10.9)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2) 충청권

● 대전: 생산 감소(-8.2%), 고용 증가(3.6%), 수출 증가(5.0%)
- 주요 업종인 담배 제조업(-8.9%), 기타 기계 및 장비(-3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4.8%) 등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세
- 제조업(-13.5%)이 감소세이나, 농림 · 어업(14.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6.0%)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58.6%), 원동기펌프(14.9%), 자동차부품(27.5%)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은 증가

● 세종: 생산 증가(9.1%), 고용 증가(1.7%), 수출 증가(8.8%)
- 전체 생산은 전년동월비 9.1% 증가하여 증가세 지속
- 제조업(4.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0.7%)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정밀화학원료(-17.0%)의 감소에도 불구, 기구부품(37.7%), 합성수지(15.7%)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 충북: 생산 증가(7.8%), 고용 증가(5.8%), 수출 증가(9.0%)
- 지역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4.6%)이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1.3%), 식료품 제조업(2.3%) 등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 · 어업(36.8%), 제조업(1.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3.4%)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목인 반도체(-10.9%), 농약 및 의약품(-20.6%) 등의 감소에도 불구, 건전지 및 축전지(17.3%), 정밀화학원료(55.1%), 플라스틱 제품(3.0%)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소폭 감소

● 충남: 생산 감소(-2.7%), 고용 증가(4.9%), 수출 증가(30.0%)
-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1%)의 증가에도 불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36.9%)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세
- 농림 · 어업(25.8%), 제조업(3.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2.8%) 전 부문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대전	담배 제조업	7.4	11.7	-2.7	12.4	-26.0	0.2	-21.6	1.9	37.0	-8.9
		기계 및 장비	18.5	-23.6	15.9	25.6	16.8	6.6	11.3	-16.2	27.1	-31.8
		화학제품 외	32.8	-4.7	-12.5	-11.8	-22.2	-23.7	-9.1	-19.7	-36.8	-4.8
	세종	총지수	2.1	8.0	12.1	17.0	13.9	7.3	11.1	4.4	6.7	9.1
	충북	전자부품 외	3.8	-14.2	33.2	31.1	46.9	42.9	38.8	37.0	52.8	31.3
		식료품	13.3	6.9	4.7	5.8	1.8	7.1	6.2	11.9	3.4	2.3
		화학제품 외	1.2	-9.3	16.9	40.6	10.0	-14.7	-2.0	-22.5	-17.0	-14.6
	충남	전자부품 외	-9.8	-9.5	-16.8	-10.0	-12.6	-20.5	-25.4	-22.4	-13.5	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0.6	0.1	-0.1	8.7	-22.4	1.0	-2.6	-8.5	15.8	-36.9
		화학제품 외	-3.0	1.1	10.2	12.5	18.7	6.0	2.9	9.7	5.3	3.5
고용	대전	농림·어업	8 (14.3)	8 (0.0)	8 (0.0)	8 (-11.1)	8 (14.3)	10 (42.9)	10 (25.0)	10 (25.0)	9 (50.0)	8 (14.3)
		제조업	102 (21.4)	105 (2.9)	91 (-13.3)	93 (-12.3)	91 (-11.7)	86 (-14.0)	87 (-13.9)	88 (-12.0)	83 (-16.2)	83 (-13.5)
		SOC·서비스	661 (-1.0)	667 (0.9)	684 (2.5)	685 (4.1)	697 (3.6)	699 (2.8)	697 (2.5)	705 (2.6)	696 (3.6)	688 (6.0)
	세종	농림·어업	8 (14.3)	8 (0.0)	9 (12.5)	11 (22.2)	11 (22.2)	8 (14.3)	11 (22.2)	9 (12.5)	5 (0.0)	5 (25.0)
		제조업	24 (0.0)	24 (0.0)	24 (0.0)	23 (0.0)	24 (0.0)	25 (4.2)	24 (4.3)	25 (4.2)	25 (4.2)	25 (4.2)
		SOC·서비스	136 (16.2)	148 (8.8)	153 (3.4)	155 (4.7)	154 (0.7)	152 (0.7)	154 (2.0)	151 (-0.7)	151 (0.7)	150 (0.7)
	충북	농림·어업	89 (-1.1)	93 (4.5)	96 (3.2)	101 (0.0)	104 (3.0)	101 (14.8)	107 (9.2)	103 (13.2)	94 (23.7)	93 (36.8)
		제조업	190 (4.4)	201 (5.8)	212 (5.5)	213 (8.7)	207 (1.0)	211 (1.0)	207 (-0.5)	210 (0.5)	215 (2.4)	214 (1.4)
		SOC·서비스	601 (0.0)	596 (-0.8)	588 (-1.3)	592 (-2.1)	599 (0.5)	601 (2.0)	606 (3.9)	603 (0.5)	593 (1.5)	571 (3.4)
	충남	농림·어업	143 (2.1)	162 (13.3)	177 (9.3)	197 (9.4)	206 (15.1)	178 (6.0)	208 (8.9)	186 (5.1)	139 (2.2)	117 (25.8)
		제조업	270 (0.0)	250 (-7.4)	257 (2.8)	259 (4.0)	250 (5.0)	262 (4.0)	255 (2.4)	262 (3.6)	269 (5.9)	259 (3.2)
		SOC·서비스	783 (1.8)	764 (-2.4)	760 (-0.5)	760 (-0.1)	775 (-1.9)	769 (0.9)	776 (-0.6)	771 (1.2)	761 (2.6)	747 (2.8)
수출	대전		4,048 (-10.3)	5,018 (24.0)	4,954 (-1.3)	1,175 (12.6)	1,241 (-9.4)	1,258 (-7.9)	403 (-14.0)	426 (-0.4)	429 (-8.7)	420 (5.0)
	세종		1,285 (4.5)	1,300 (1.2)	1,531 (17.7)	361 (30.9)	388 (16.5)	421 (13.2)	145 (30.2)	137 (0.0)	139 (12.4)	136 (8.8)
	충북		4,048 (-10.3)	5,018 (24.0)	4,953 (-1.3)	6,717 (19.3)	7,581 (20.4)	7,249 (1.6)	2,237 (4.2)	2,301 (1.5)	2,711 (-0.3)	2,526 (9.0)
	충남		1,285 (4.5)	1,300 (1.2)	1,532 (17.8)	24,761 (42.6)	28,195 (39.5)	29,087 (29.4)	8,984 (26.6)	9,953 (35.9)	10,150 (26.0)	9,166 (30.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주력수출품 중 반도체(28.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9.5%), 컴퓨터(65.0%), 석유제품(61.4%)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3) 호남권

● 광주: 생산 증가(9.5%), 고용 소폭 증가(0.8%), 수출 증가(3.8%)
- 주요 업종인 전기 장비(3.6%), 자동차 및 트레일러(19.4%) 등의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1.0%) 증가했으나, 농림·어업 및 제조업의 보합으로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침.
-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3.3%) 감소에도 불구, 반도체(35.2%), 냉장고(10.0%)의 증가로 전체 수출은 증가세

● 전북: 생산 증가(3.7%), 고용 증가(3.4%), 수출 증가(34.1%)
-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8.2%) 감소에도 불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4.2%), 식료품 제조업(11.9%) 등의 생산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2.6)은 감소했으나, 제조업(3.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5.0%) 부문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세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정밀화학원료(59.1%), 합성수지(51.5%), 동제품(48.2%)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 전남: 생산 증가(11.5%), 고용 증가(1.2%), 수출 증가(50.1%)
- 석유정제품(0.9%), 1차 금속 제조업(-7.5%)은 소폭 증가 및 감소하였으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5.8%)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7.4%), 제조업(7.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3.7%) 전 부문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석유제품(51.5%), 합성수지(38.4%), 철강판(28.0%)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광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1.0	6.6	27.4	-14.6	13.2	-19.5	17.5	54.5	19.4
		전기장비	1.0	8.7	14.5	41.7	-2.3	3.9	9.4	10.1	-9.8	3.6
		기계 및 장비	8.0	-11.2	5.9	27.4	-9.0	14.6	4.6	7.0	33.5	-0.1
	전북	자동차 및 트레일러	-8.9	-14.0	8.8	6.4	-0.2	17.5	5.2	18.1	30.6	4.2
		화학제품 외	-11.0	-11.1	0.7	26.6	-5.1	-10.3	-8.9	-12.5	-9.5	-8.2
		식료품 제조업	5.6	-0.6	1.6	0.4	-3.1	11.0	6.1	15.3	11.5	11.9
	전남	화학제품 외	2.2	-2.9	15.0	14.2	16.4	28.2	17.3	40.2	29.5	25.8
		1차 금속 제조업	-0.9	-8.1	7.8	24.6	6.6	-0.9	0.9	-3.4	-0.2	-7.5
		석유정제품	-2.9	-3.7	14.9	14.6	20.7	24.1	28.5	28.3	16.3	0.9
고용	광주	농림·어업	13 (30.0)	16 (23.1)	12 (-25.0)	13 (-18.8)	12 (-25.0)	13 (-13.3)	13 (-23.5)	13 (-13.3)	13 (0.0)	13 (0.0)
		제조업	110 (-0.9)	107 (-2.7)	100 (-6.5)	100 (-6.5)	96 (-10.3)	101 (-3.8)	100 (-5.7)	99 (-4.8)	104 (-1.0)	104 (0.0)
		SOC·서비스	626 (-0.2)	625 (-0.2)	632 (1.1)	639 (2.6)	644 (2.9)	627 (-0.2)	638 (1.8)	630 (1.0)	611 (-3.6)	613 (1.0)
	전북	농림·어업	168 (7.0)	179 (6.5)	169 (-5.6)	179 (-5.3)	172 (-9.9)	164 (-6.8)	174 (-7.0)	165 (-8.8)	153 (-4.4)	149 (-2.6)
		제조업	123 (0.0)	123 (0.0)	120 (-2.4)	118 (-6.3)	116 (-3.3)	123 (3.4)	123 (7.0)	123 (1.7)	123 (0.8)	124 (3.3)
		SOC·서비스	635 (0.0)	630 (-0.8)	663 (5.2)	664 (8.3)	681 (7.4)	668 (2.8)	675 (3.4)	682 (2.7)	648 (2.0)	649 (5.0)
	전남	농림·어업	191 (-2.6)	205 (7.3)	221 (7.8)	221 (6.3)	229 (6.5)	230 (5.5)	234 (4.9)	234 (6.4)	222 (5.2)	217 (7.4)
		제조업	104 (1.0)	106 (1.9)	97 (-8.5)	97 (-10.2)	98 (-12.5)	98 (-3.0)	97 (-6.7)	99 (-2.0)	97 (0.0)	102 (7.4)
		SOC·서비스	678 (2.4)	662 (-2.4)	667 (0.8)	677 (2.4)	674 (3.1)	668 (1.7)	685 (3.8)	674 (1.5)	644 (-0.2)	645 (3.7)
수출	광주		13,415 (-8.5)	13,772 (2.7)	16,604 (20.6)	4,192 (53.9)	3,952 (1.4)	4,431 (16.0)	1,365 (2.9)	1,457 (15.1)	1,609 (31.1)	1,297 (3.8)
	전북		6,537 (-16.5)	5,842 (-10.6)	7,820 (33.9)	2,001 (59.4)	1,965 (33.1)	2,098 (29.5)	701 (38.1)	708 (33.9)	689 (18.0)	747 (34.1)
	전남		32,587 (-11.0)	27,092 (-16.9)	43,294 (59.8)	10,179 (85.2)	11,590 (62.0)	12,546 (76.9)	4,177 (89.9)	4,238 (89.3)	4,131 (55.7)	4,292 (50.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4) 대경권

● 대구: 생산 증가(3.5%), 고용 증가(4.0%), 수출 증가(33.8%)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0.3%), 금속가공제품(-7.2%) 감소에도 불구, 기타 기계 및 장비(14.2%) 등의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대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	-12.7	13.4	57.3	4.8	-4.9	-10.2	-6.0	1.7	-0.3
		금속가공제품	-1.5	-13.4	7.3	28.1	8.1	10.1	2.9	15.2	13.0	-7.2
		기계 및 장비	10.2	-16.9	19.5	27.1	18.2	34.4	22.7	32.5	46.1	14.2
	경북	전자부품 외	-7.2	-11.4	8.4	4.2	-9.2	29.6	23.1	27.2	38.7	-34.7
		1차 금속	-7.8	-2.8	-0.9	8.3	1.4	-10.7	-11.8	-8.0	-12.0	-6.5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6.9	8.3	34.5	-0.3	-6.3	-11.4	-9.4	2.0	-2.2
고용	대구	농림·어업	33 (10.0)	31 (-6.1)	15 (-51.6)	16 (-51.5)	11 (-64.5)	11 (-59.3)	12 (-55.6)	11 (-57.7)	9 (-65.4)	8 (-66.7)
		제조업	249 (-1.6)	231 (-7.2)	239 (3.5)	246 (7.4)	241 (6.2)	234 (1.3)	231 (0.9)	237 (2.2)	234 (0.4)	239 (2.6)
		SOC·서비스	936 (-0.6)	923 (-1.4)	963 (4.3)	967 (7.3)	979 (3.9)	980 (3.4)	990 (4.4)	984 (2.7)	968 (3.1)	959 (6.2)
	경북	농림·어업	251 (6.8)	262 (4.4)	274 (4.6)	285 (9.2)	293 (1.7)	271 (-4.2)	295 (1.4)	274 (-5.2)	242 (-9.4)	238 (-1.7)
		제조업	299 (5.3)	292 (-2.3)	283 (-3.1)	277 (-6.7)	281 (-2.1)	295 (6.5)	288 (1.4)	296 (7.6)	300 (10.3)	298 (7.2)
		SOC·서비스	879 (-3.0)	863 (-1.8)	853 (-1.2)	854 (0.0)	864 (-0.1)	862 (0.0)	866 (0.5)	866 (-1.5)	855 (1.2)	833 (2.3)
수출	대구		7,491 (-7.6)	6,265 (-16.4)	7,934 (26.6)	1,950 (64.7)	1,910 (23.4)	2,217 (24.9)	658 (14.9)	747 (30.7)	812 (28.8)	804 (33.8)
	경북		37,712 (-7.8)	37,096 (-1.6)	44,314 (19.5)	10,308 (31.7)	11,108 (20.2)	12,591 (14.4)	3,944 (8.9)	4,297 (18.7)	4,350 (15.7)	3,633 (5.8)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농림·어업(-66.7%)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2.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6.2%)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9.3%), 농기계(49.5%) 증가, 정밀화학원료(355.9%) 대폭 증가 등으로 전체 수출 증가세

● 경북: 생산 감소(-10.9%), 고용 증가(2.6%), 수출 증가(5.8%)
- 주요 업종인 1차 금속 제조업(-6.5%) 감소에도 불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4.7%)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제조업(7.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2.3%)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수출 상위 품목인 철강판(53.3%), 반도체(135.0%) 등의 증가로, 무선통신기기(-9.3%)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 증가세

(5) 동남권

● 부산: 생산 증가(6.8%), 고용 증가(1.8%), 수출 증가(47.1%)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10.2%), 자동차 및 트레일러(35.1%), 1차 금속 제조업(12.1%) 등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제조업(-11.2%)은 감소에도 불구, 농림·어업(88.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3.6%)은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212.2%), 철강판(71.0%), 철강관 및 철강선(33.9%) 등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

● 울산: 생산 감소(-2.4%), 고용 증가(1.5%), 수출 증가(35.9%)
- 대표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4%), 석유정제품(18.6%) 등의 증가에도 불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10.4%)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로 전환
- 제조업(-3.0%) 감소에도 불구,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3.5%)이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로 전환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3.1%), 석유제품(167.0%), 합성수지(54.3%)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부산	기계 및 장비	6.3	-3.6	-0.6	-8.4	5.4	22.2	27.1	30.0	11.5	1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0	-19.2	10.4	14.2	1.7	41.5	44.9	33.5	46.8	35.1
		1차 금속 제조업	-0.2	-4.8	-1.8	-4.9	4.3	3.8	7.3	-0.1	4.6	12.1
	울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4.9	-9.4	4.1	20.4	-8.2	-7.9	-14.2	-11.0	2.4	-10.4
		화학제품 외	0.3	-2.8	6.4	8.7	9.7	5.1	-0.1	8.1	7.3	1.4
		석유정제품	-3.1	-9.2	-1.7	-3.4	3.3	7.9	10.3	6.7	6.8	18.6
	경남	기타 운송장비	42.0	-12.4	-22.0	-24.5	-20.5	-5.8	-6.7	-1.1	-9.0	-2.7
		기계 및 장비	-7.1	-9.7	8.6	15.3	10.7	10.1	14.5	8.1	8.3	9.4
		금속가공제품	-16.0	-2.9	-7.3	-9.6	-7.5	-5.9	-11.9	-11.4	6.5	-10.7
고용	부산	농림·어업	7 (-30.0)	7 (0.0)	11 (57.1)	10 (42.9)	12 (71.4)	14 (75.0)	12 (50.0)	13 (44.4)	17 (112.5)	17 (88.9)
		제조업	284 (-0.7)	255 (-10.2)	240 (-5.9)	244 (-5.4)	237 (-5.6)	226 (-9.6)	229 (-8.4)	229 (-7.3)	220 (-12.7)	222 (-11.2)
		SOC·서비스	1,385 (1.8)	1,378 (-0.5)	1,407 (2.1)	1,417 (4.9)	1,433 (3.4)	1,420 (2.1)	1,423 (2.2)	1,428 (1.6)	1,408 (2.4)	1,385 (3.6)
	울산	농림·어업	6 (0.0)	7 (16.7)	6 (-14.3)	6 (-14.3)	7 (0.0)	5 (-28.6)	6 (-14.3)	5 (-28.6)	5 (-16.7)	5 (0.0)
		제조업	176 (-4.9)	162 (-8.0)	163 (0.6)	162 (1.3)	163 (2.5)	162 (1.3)	164 (3.1)	162 (1.9)	161 (-1.2)	159 (-3.0)
		SOC·서비스	389 (1.6)	392 (0.8)	385 (-1.8)	384 (-1.3)	389 (-2.0)	392 (0.0)	394 (0.0)	397 (0.0)	386 (0.0)	384 (3.5)
	경남	농림·어업	178 (-2.7)	184 (3.4)	203 (10.3)	207 (8.4)	225 (19.7)	209 (15.5)	227 (16.4)	211 (16.6)	188 (11.9)	185 (12.8)
		제조업	396 (-5.3)	399 (0.8)	377 (-5.5)	380 (-6.6)	370 (-7.0)	377 (-1.3)	368 (-1.1)	378 (-3.3)	386 (0.8)	390 (0.5)
		SOC·서비스	1,173 (2.5)	1,145 (-2.4)	1,151 (0.5)	1,175 (4.3)	1,164 (1.0)	1,138 (-1.8)	1,160 (-0.7)	1,154 (-1.8)	1,100 (-2.9)	1,099 (-0.4)
수출	부산		13,924 (-3.4)	11,320 (-18.7)	14,816 (30.9)	3,761 (53.2)	3,818 (37.6)	4,143 (36.8)	1,312 (49.2)	1,446 (39.5)	1,385 (24.5)	1,403 (47.1)
	울산		69,530 (-0.9)	56,091 (-19.3)	74,268 (32.4)	18,804 (66.3)	18,434 (31.4)	20,442 (35.5)	6,590 (39.3)	6,481 (28.4)	7,371 (39.0)	6,707 (35.9)
	경남		39,353 (-2.2)	35,893 (-8.8)	39,262 (9.4)	9,246 (19.9)	9,368 (19.6)	9,887 (-2.5)	3,193 (3.9)	3,738 (40.5)	2,956 (-32.9)	2,794 (-39.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경남 : 생산 소폭 증가(0.8%), 고용 증가(1.2%), 수출 감소(-39.1%)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9.4%)는 증가했으나, 기타 운송장비(-2.7%) 감소, 금속가공제품(-10.7%)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0.4%)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12.8%), 제조업(0.5%) 소폭 증가 등에 따라 전체 고용은 증가로 전환
- 주요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88.4%), 건설광산기계(-2.2%), 원동기 및 펌프(-9.6%)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6) 강원·제주권

● 강원: 생산 증가(5.2%), 고용 증가(4.5%), 수출 증가(25.4%)

- 대표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9.9%), 식료품 제조업(7.5%), 음료 제조업(30.9%)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14.3%) 제조업(3.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3.9%) 전 부문의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지역 상위 수출품인 합금철선철 및 고철(86.2%), 전자응용기기(11.6%), 농산가공품(42.9%)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 제주: 생산 증가(14.3%), 고용 증가(6.6%), 수출 증가(14.3%)

- 주요 업종인 음료 제조업(56.4%), 식료품 제조업(40.5%), 비금속 광물제품(59.2%)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이 증가
- 제조업(23.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9.9%)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지역 수출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곡실류(-29.4%) 등은 감소했으나, 반도체(27.4%), 어류(34.4%) 증가로 전체 수출은 증가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강원	비금속 광물제품	-4.7	-4.6	-2.0	-4.8	4.3	-2.5	-6.6	-7.1	6.3	9.9
		식료품	5.0	-2.1	3.7	0.3	3.3	8.9	-0.4	13.6	14.4	7.5
		음료	7.9	-4.2	-6.6	-12.0	-8.8	1.4	-12.8	3.4	17.1	30.9
	제주	음료	5.4	-0.7	-0.7	-12.6	4.0	-6.8	-11.7	-9.1	0.6	56.4
		식료품	-6.3	-2.5	-11.3	-3.2	-9.1	-13.7	1.9	-11.4	-21.8	40.5
		비금속 광물제품	-12.8	-28.8	6.4	66.6	-16.2	4.8	2.3	6.2	6.1	59.2
고용	강원	농림·어업	92 (5.7)	82 (-10.9)	69 (-15.9)	75 (-27.2)	82 (-14.6)	72 (7.5)	82 (-7.9)	78 (6.8)	56 (47.4)	40 (14.3)
		제조업	56 (7.7)	57 (1.8)	55 (-3.5)	54 (-3.6)	55 (0.0)	56 (3.7)	55 (3.8)	57 (5.6)	56 (3.7)	56 (3.7)
		SOC·서비스	658 (2.3)	649 (-1.4)	678 (4.5)	697 (7.6)	697 (5.8)	685 (4.1)	696 (4.0)	701 (3.4)	657 (4.8)	620 (3.9)
	제주	농림·어업	67 (13.6)	74 (10.4)	67 (-9.5)	68 (-9.3)	62 (-15.1)	66 (-12.0)	65 (-14.5)	69 (-6.8)	65 (-11.0)	63 (-11.3)
		제조업	12 (0.0)	12 (0.0)	14 (16.7)	14 (27.3)	15 (25.0)	17 (21.4)	16 (14.3)	17 (21.4)	17 (30.8)	16 (23.1)
		SOC·서비스	303 (0.7)	292 (-3.6)	302 (3.4)	306 (7.7)	302 (3.1)	306 (3.7)	305 (5.2)	307 (1.3)	307 (4.8)	310 (9.9)
수출	강원		2,088 (-0.4)	2,023 (-3.1)	2,729 (34.9)	659 (47.7)	718 (39.0)	719 (21.4)	261 (49.4)	238 (11.9)	220 (7.4)	237 (25.4)
	제주		149 (-18.3)	155 (4.0)	228 (47.1)	60 (95.4)	58 (83.5)	65 (19.9)	19 (57.0)	23 (19.0)	23 (1.0)	16 (14.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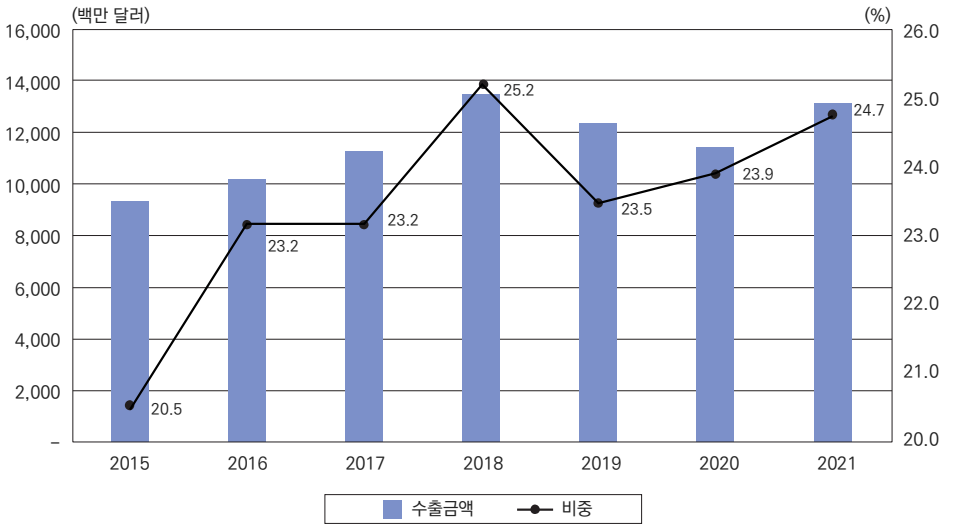
산업 포커스

01 중국의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투자 정책과 국내 기계산업의 기회요인

1. 국내 기계산업의 대중 수출

- 국내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수출은 코로나19 등에도 불구하고 2015년 93억 2,000만 달러에서 2021년 131억 2,000만 달러로 연평균 5.9% 증가
  - 단지, 2019년과 2020년에 감소한 것은 2019년에 미국의 대중국 수입 규제에 따른 부품·소재 수입 수요 감소,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 기인
  - 2021년에는 전년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전년 대비 14.6% 증가
-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일반기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중국 비중이 같은 기간에 20.5%에서 24.7%로 4.2%포인트 상승
-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은 유리 및 광물가공기계, 광산기계, 볼트, 밸브, 베어링, 스프링 등 기계요소, 원동기 및 펌프, 운반하역기계 등을 들 수 있는데,
  - 이들 품목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21년 각각 68.2%, 61.1, 34.8%, 23.3%, 17.3% 및 16.5% 차지

국내 일반기계산업의 대중 수출 및 비중 추이(2015~2021)



자료: 무역협회.

● 2022년에는 중국 전반의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건설 투자에 따라 건설기계장비를 비롯하여 기계요소 및 금형, 원동기 및 펌프, 운반하역기계, 냉동공조 등 일반기계 내 다양한 품목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중국의 내수 활성화 및 자국산 선호 정책에 따라 최종재 수출은 감소할 수 있으나 중간재 제품이 강한 일반기계는 전년에 이어 많은 기회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

2. 중국의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투자 정책

● 중국은 2020년 3월, '신형인프라 투자계획'을 통해 교통, 전력발전, 이차전지, 정보통신 인프라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

● 2021년 3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목표'를 통해 산업의 기초역량 및 제조업 핵심 경쟁력 향상을 중심으로 제조강국 전략의 추진을 심화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현대 인프라 시스템

중국 주요 지방정부의 2022년 인프라 투자 계획

	주요 내용
베이징	· 광역철도 3건, 일반 물류센터 건설 · 양수발전 증설 · 자율주행 시범단지 조성 · 전기차 충전기 5만 개 이상 및 배터리교체소 100개 구축
허베이	· 농촌도로 7,000km, 도시주차장 17만 건, 공항 3개, 수리공정 4건 건설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8GW 증설 · 데이터센터 3개, 5G 신규 기지국 2.5만 개, 산업용 5G 인프라 30건 건설
산시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10건, 양수발전 2건, UHV 3건 증설 · 5G 신규기지국 3만 개 · 지하철 2건, 고속철도 2건, 고속도로 14건, 농촌도로 4,000km, 수리공정 4건, 교량, 일반물류센터 3건 건설 및 공항 확장
네이멍구	· 고속철도 4건, 농촌도로 5,000km, 공항 3건, 도시가스관, 수리공정 3건, 저온유통체계 물류센터 1건, 일반물류센터 3건 건설 · 재생에너지발전비중 40%까지 제고, 재생에너지발전설비 20GW, 양수발전 2건 증설 · 5G 신규기지국 1만 개, 산업용 5G 인프라 건설 · 원자재 재처리시설 2건 건설
랴오닝	· 고속철도 4건, 고속도로 2,200km, 농촌도로 1만 1,000km, 공항 1건 · 원전 2건 증설, 산업인터넷 플랫폼 50건 건설
지린	· 고속도로 1,029km, 농촌도로 2,500km, 저온유통체계 물류센터 1건, 일반물류센터 2건 건설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UHV, 전기차충전시설, 보일러설비 0.83GW 증설
헤이룽장	· 지하철 2건, 고속철도 2건, 고속도로 2건, 공항 1건 건설
상하이	· 철도-지하철 연계사업 4건 추진, 3개 공항철도 확장, 지하철 4건, 쓰레기 처리시설 7건 건설 및 푸둥공항 확장 · 태양광발전시설 0.3GW · 전기차 충전시설 10만 개 증설, 택시시범충전소 45개, 수소 충전소 20개 구축 · 500억 위안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中芯國際臨港 프로젝트) · 임대주택 47만 채 건설(~2025)
장쑤	· 고속철도 1건, 철도 4건, 고속도로 1건, 공항 5건, 수리공정 3건 건설, 항구 확장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2건 증설 · 산업용 5G 인프라 구축
저장	· 지방정부 특수채 자금조달 20% 확장, 기초 인프라 투자 5.5% 확대 · 지하철 및 철도 260km, 고속도로 4건, 농촌도로 1,600km, 교량 1건, 공항 1건, 도시주차장 10만 건, 농촌배수관 2,800km 건설 · 노후시설 2,150건 교체 및 보수 ·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4GW, 원전 1건, 양수발전, ESS 1GW 건설

(계속)

	주요 내용
안후이	· 신규 교통인프라 2,600건 착공: 고속도로 300km, 도시주차장 5만 건, 수처리시설 30만 톤급, 도시배수관 1,000km, 수리공정 8건, 항구창고 300건 건설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3.5GW · 전기차 충전시설 1만 8,000개 보급 · 5G 신규 기지국 2만 5,000개 건설
푸젠	· 지하철 1건, 고속도로 1건, 항구 2건, 일반물류센터 2건, 수처리시설 500건 건설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증설
장시	· 1조 1,000억 위안 규모의 3,453건 프로젝트 추진: 철도 2건, 고속철도 2건, 고속도로 1건, 교량 1건, 저온유통체계 물류센터 건설
산둥	· 2,700억 위안 규모 기초 인프라 투자 : 고속철도 6건, 고속도로 6건, 도로 1,200km, 농촌도로 1만km, 공항 5건, 도시배수관 30건, 도시가스관 450km, 저온유통체계 물류센터 2건, 일반물류센터 35건 건설 및 500억 위안 규모 수리공정사업 · 풍력발전 4건, 원전 3기 증설 · 데이터센터 30건, 산업인터넷단지 누적 15개 · 5G 신규 기지국 6만 개 건설 · 전기차 충전인프라 10만 개 이상(누적)
허난	· 고속도로 3,000km, 고속도로 1만km(~2025) · 5.88km^2 면적의 현대화사업 추진 · 공항 3건, 고속도로 800km, 농촌도로 5,000km, 농촌 수자원 공급시설 10건, 농촌 수처리시설 774건 건설 및 4,227건의 수리공정사업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4.5GW, 양수발전 2건, 에너지저장시설 6건 증설 · 데이터센터 3건, 5G 신규 기지국 2만 6,000개 건설
후베이	· 철도 15건, 고속도로 26건, 농촌도로 1만km, · 4,274건의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고속철도 6건 건설
광둥	· 지하철 6건, 고속철도 11건, 철도 2건, 고속도로 3건, 공항 5건, 항구 5건 도시배관 1,500km 건설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4건, 양수발전 3건 전력망 및 UHV 4건 증설 · LNG저장시설, 데이터센터 건설
광시	· 철도 10건, 고속도로 2,800km, 항만시설 35건, 공항 2건, 수자원 저장시설 6건, 배수관 3,500km 건설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3건, 양수발전, UHV 증설 · 5G 신규기지국 1만 5,000개, 산업용 5G 인프라 30건 건설
하이난	· 원자재 재처리시설 건설, 전기차 충전시설 증설
충칭	· 3개 메가시티 건설 및 교통인프라 건설 · 지하철 352km, 고속철도 15건, 고속도로 1,696km, 농촌도로 4,000km, 공항 5건, 항만시설 7건, 보도 1,500km 건설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양수발전 UHV 5건 증설

(계속)

	주요 내용
쓰촨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3건, 수력발전설비 5건, UHV2건 증설 · 셰일가스 생산기지 확장 · 데이터센터 3건 건설
윈난	· 고속도로 8건, 고속도로 1만 1,000km, 공항 4건 건설 및 수리공정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31GW, 친환경 화력발전설비 4.8GW 증설 · 셰일가스 생산기지 확장 · 5G 신규 기지국 2만 개 건설
시장	· 철도-도로 연계사업 17건, 고속도로 3건, 공항 및 도로 14건, 농촌도로 96건, 저온유통체계 물류센터 2건 건설 · 고속도로 6건, 공항 1건 건설 · 발전 및 에너지 저장시설 16GW 구축 · UHV 및 일반 전력망 확장
산시	· 고속철도 3건, 고속도로 1건, 공항 2건, 쓰레기처리시설 27건 건설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3건, 양수발전, UHV 2건 증설 · 데이터센터 건설 · 원자재 재처리시설 건설
간쑤	· 철도 8건, 고속도로 5건, 공항 7건 건설 · 재생에너지발전설비-UHV 연계사업 4건, 재생에너지발전설비 4건, 양수발전 4건 증설 · 원자재 재처리시설 건설
칭하이	· 지하철 1건, 철도 2건, 고속도로 3건, 공항 2건 건설 및 수리공정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3건, UHV 2건 건설 및 농촌전력망 보수 · 전기차 충전시설 증설 · 데이터센터 2건 건설
닝샤	· 2,000억 위안 규모의 10대 교통 인프라 및 6대 수리공정 사업 추진 · 도시주차장 4만 건 건설 · 원자재 재처리능력 43%까지 제고
신장	· 재생에너지발전설비, UHV 3건 증설 · 21만 가구 친환경보일러 도입 · 5G 신규 기지국 및 데이터센터 건설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2022. 2. 7), 한국무역협회(2021. 8. 25), "중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현황 및 시사점", KITA Market report,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산업연구원 정리.

건설에 집중할 것을 발표

- 연이어 4월에는 '스마트 제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제조업 기업의 스마트 제조 능력 제고 목표를 제시

● 중국의 31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2022년 지방양회 및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022년 중국의 인프라 건설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고속도로, 철도, 공항 신설 및 증설을 비롯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대규모 설치, 5G 신규 기지국 및 데이터 센터, 에너지 관련 인프라 건설 계획을 발표

● 대표적으로 상하이시는 2022년 1월, '2022년 유효 투자 확대를 통한 상하이 경제의 안정성장에 관한 정책 조치(2022年上海市扩大有效投资稳定经济发展的若干政策措施)'를 통해 중대 프로젝트에 2,0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할 목표를 제시

- 도시의 장기적 발전과 안전을 위한 항구지역, 항로, 철도 궤도교통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도시재개발 등을 가속화하고, 신(新)인프라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 광둥성은 4,000헥타르 규모의 20개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 2021년 4분기에는 4,455억 3,000만 위안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배정

- 교통을 비롯한 에너지시설, 디지털 인프라 방면에 투자를 집중하고, 선전시에서는 한스레이저(중국명: 大族) CNC(수치제어) 산업단지, 킹디스플레이(國顯) 신형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생산기지 등 건설 사업

● 원자재와 장비제조 중심의 랴오닝성은 선진장비제조업 기지를 육성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디지털 기초 인프라 및 플랫폼을 확충할 계획임.

3.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기회요인과 대응전략

● 인프라 투자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건설장비의 경우 중국의 도시화 사업 등으로 소형굴착기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 변화를 파악하여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

● 건설시장을 비롯해 항공, 항구, 조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냉·난방·공조시스템도 수요가 높아질 전망

- 최근 AI 스마트홈을 비롯하여 상업용 시설에서는 환기장치 기능이 다양한 청정, 진공, 극저온, 항온 등 첨단기술 및 환경친화적 특성이 요구되는 추세에 따라 친환경 냉매를

적용한 제품 등 친환경·고효율화를 통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함.

- 중국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따라 스마트 기능이 더해진 제품 마케팅에 주력할 필요
  - 광학기기의 경우 향후 최대 광학렌즈 수요처인 중국을 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시장파악 전략을 통해 고해상도의 이미지 품질, 감지 기술, 줌 기능, 떨림 보정 기능 등 세분화되고 고도화된 기술을 갖추어야 함.
- 일반기계 내 품목들은 중국의 수출 최종재 생산에 활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조업 정책과 소비트렌드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특화된 부품 및 생산장비를 마케팅해야 함.
-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협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한-중 간에는 경제협력을 위한 채널로서 중앙정부-중앙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형태로 다수의 협의체가 구축
  - 일반기계 분야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산업부 등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적합기관, 기업 및 지역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중국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전략에 부합하는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해외기업 유치 및 연구개발 협력에 인센티브가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활용

윤자영 | 기계·방위산업실 전문연구원